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겸 기연수
주간
편집장 노재봉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03호 1993년 4월 13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이문동 중기투자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학생측 요구안 분석

중기투자, 제2의 도약 신호탄

작년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주내용으로 파업까지 치달으면서 뜨겁게 타올랐던 '외대발전'의 불꽃이, 이제는 기층에서부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내적 충실을 기하듯 소리없이 달궈지고 있다.

지난 4월1일 정기학생총회에서 1차적으로 제시되었던 이문동 중기투자계획이 각 단위의 활발한 토론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8일(목) 외대발전을 위해 동원체단에 이문동 중기투자 방안 시행, 투자재원 확보, 자곡동 캠퍼스 부지 확정, 제단 수익사업체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띄우고 19일(월)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방안은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계획 아래에서 입안되어,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이라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인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학생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1백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교육내용 부분이다. 교육내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교수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국 사립학교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7명인데 비하여 본교는 이문, 용산을 합쳐 39명에 이르며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게다가 시간 강사의 비율이 타대학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단대별 교육내용 향상을 위한 요구사안이 완결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교과과정 개편을 비롯한 교환학점제 상향조정(현재 한학기당 3학점 인정), 특수 어학의 사전 발간, 부속교동학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세번째 재원확보 방안이다. 위에서 말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내용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학생회에서는 현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와 건물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원육영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원농산, 경기도 이천, 전라도 목포의 땅, 이문동 주변 주택가, 그리고 대원빌딩 매각을 통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문동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임야가 약 1만2천21평, 전라도 목포에 대지가 약 4백2평, 이문동에 대지가 34평, 공릉동 외국인 아파트(교육용 부지) 약 1천3백평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약 64억9천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나오며, 또한 대지면적 3백78평, 연건평 2천7백10평에 이르는 대원빌딩은 9억2백33억 상당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학생회는 밝혔다.

여기서 학생회는 투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학교주변 토지매입으로 해결해야

그럼 학생회에서 제시한 이문동 중기투자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다. 현재 이문동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숙사, 실내 체육관, 단대 독립 강의동, 교수 연구동의 설립과 외대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어학당 설립 그리고 현재의 고시원 이전과 도서관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굳이 구구절절 그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 강의동을 3개의 단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또한 실내체육관은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도 갖추고 있는 시설임을 잘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보직이 바뀔때 마다 점을 싸들고 새로운 교수실로 옮겨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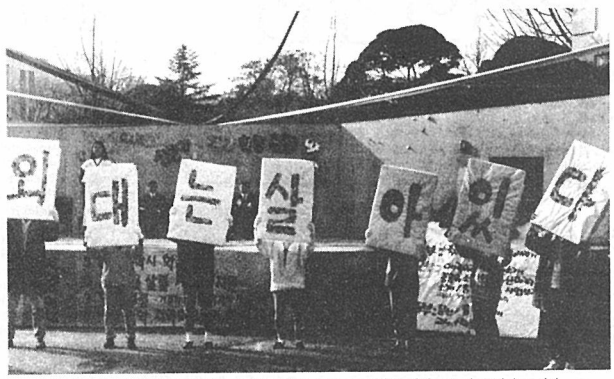
때문에 현재 재단이 이문동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34평의 주택가와 교육용 부지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희 연립 그리고 이문동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신강의동과 교수 연구동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자곡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다면 이중 투자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기투자 계획에 있어 재원확보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아직까지 단대별 교육내용 향상을 위한 요구사안이 완결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교과과정 개편을 비롯한 교환학점제 상향조정(현재 한학기당 3학점 인정), 특수 어학의 사전 발간, 부속교동학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세번째 재원확보 방안이다. 위에서 말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내용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학생회에서는 현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와 건물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원육영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원농산, 경기도 이천, 전라도 목포의 땅, 이문동 주변 주택가, 그리고 대원빌딩 매각을 통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문동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임야가 약 1만2천21평, 전라도 목포에 대지가 약 4백2평, 이문동에 대지가 34평, 공릉동 외국인 아파트(교육용 부지) 약 1천3백평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약 64억9천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나오며, 또한 대지면적 3백78평, 연건평 2천7백10평에 이르는 대원빌딩은 9억2백33억 상당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학생회는 밝혔다.

여기서 학생회는 투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학생요구안 실현을, 용인캠퍼스는 운동본부건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재단 수익용 토지와 건물 매각으로 재원 확보해야

먼저 90년 자료에 따르면 전라도 목포의 재단 소유 부지가 9백88평으로 되어있는데 93년 자료에 따르면 4백2평으로 되어 있어 그 사이 사라진 586평에 대한 행방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로 학생회에서 평당 현지시가를 조사하여 계산한 결과 대원빌딩의 연수익이 24억7천여만원인데 93년 재단 예결산자료에 따르면 13억3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차액 11억의 행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등록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배들의 등록금이 학교발전에 올바르게 투자되지 않았을 뿐더러 등록금으로 마련된 재단의 수익용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학교에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등록금으로 마련된 재단의 수익용 자산 매각을 통해 학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총학생회 정책국장 서상준(동양·인도4)군은 말한다.

학생회는 이후 계속적으로 2, 3차 요구안을 제단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생측 요구안에 대해 재단이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을시 5월초 박승준, 제단 이사회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제단의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대발전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 식'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화된 내용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내용이 아무리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실현시켜 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뜬구름이나 다를바 없다. 이제는 제 각각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내야 할 때이다. 외대발전 힘의 동력은 바로 전외대인의 단결이기 때문이다.

<강인숙 논설위원>

운동본부제기배경

운동본부(건)는 첫째로 지금껏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과로, 각과에서 총학생회로의 의사전달체계가 미흡함으로 인해 나타난 학자사업의 미진한 진행, 학자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구부재를 각과 운동본부에서 전체 운동본부로의 전일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의 극복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둘째로는 당면 교육제정확보, 사립학교법 개정요구를 용성총련단위의 연대투쟁으로 실천함으로써 힘있는 대 교육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로 작년 학자투에서 이뤄낸 학생들의 학자에대한 인식전환과 의식성장으로 건설된 학자조직의 제개와 강화로 안정적인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를 기층에서부터 조직화 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합의사항에 명시된 왕산발전계획위원회의 교수, 학생, 직원 3자 구성으로 이후 용인캠퍼스의 중·장기발전대안을 연구하고 학사행정참여를 이룩해 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개강부터 총학생회의 조기수강신청, 지정좌석제 실시 등으로 학원자주화투쟁(학자투)의 중심을 찾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기학생총회및 총학생회 해오름식에서 거행된 '교육재정확보와 왕산발전계획마련을 위한 운동본부 건설준비위원회 (이하 운동본부)'발족식으로 횃불을 빛으며 뚜렷한 중심기조가 서지 못했던 용인캠퍼스 학자투가 이제 그 포문을 열어 젖히기위한 채비를 가다듬고 있다.

용인 학자투

운동본부 건설로 돌파구 찾는다.

운동본부 건설과정의 문제

용인캠퍼스는 학기초부터 학생들의 피부로 와닿는 등록금인상, 교통요금·식비인상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이 학생들의 요구와 다소 어긋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방중 대학당국과의 협상에서 요구한 학교예결산내역, 제단예결산내역 등 5가지 요구에 대한 제단과 대학당국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점 등 학자분위기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지 못했다.

이는 각 단대가 아직 학자에 대한 연구 조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학생회 정책단위가 이러한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작년 학자투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계승과 평가를 아직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데서 기인한 문제로 보인다.

운동본부에 대한 이후 사업방향으로 대부분의 단대 학생회에서는 △제단예결산부정을 재단전입금 확보요구, △국고보조금확보를 위한 교육제정의 GNP대비 4%확충요구 △과운동본부건설에서 시작한 이후 학자추진위원회 구성 △93년 부터 실시될 왕산 2차 발전 계획안에대한 학생측 요구안 작성·관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운동본부 사업계획

이러한 운동본부의 사업방향에 대해 사회대 운동본부(건) 정책부장 노영일(사회·경정4)군은 "대학당국이 용인캠퍼스 신설때 제시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진행정도, 87년 이후 합의된 내용들의 요구사안, 강의평가제 실시, 교수 신규임용에 학생참여 보장 등의 모든 현안들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띄우자"고 주장하며 "이의 답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왕산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학생요구안과 함께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국어대는 대학당국의 왕산1차 발전계획안에도 있는 동국어대 단대분리에 대한 요구를 올해안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총여학생회의 경우는 여학생 복지사안(휴게실, 샤워실 마련) 과 교육내용에 있어 여성학강좌의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대생협) 은 어문관과, 인사대 매점의 대생협직영을 요구하고 후생복지관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왕산중학에출체 개최등의 동아리활성화 방안과 공중전화기 설치 등의 복지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협의회에서는 지지기구로 공식 인정을 올해 학자기조로 설정한 상태다. 이렇듯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단체에서는 학생회장 출마당시 내세웠던 교육환경개선 부분의 단기 학자사안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각과 단대에서 출발하는 통일된 학자내용 가져야

운동본부 이후방향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전반적인 단기학자사안이 중장기적인 왕산발전계획과 더불어 운동본부속에서 통일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적반하고 위원한 용인캠퍼스에서 벗어나기에 힘 과제를 단기적인 교육환경, 교육내용에서 학자생활 편리를 위한 왕산발전위원회구성, 중장기 왕산발전계획에서 많은 것을 이 뿌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을 체계적이고 체계있게 연구·조사하고 실천하는 단위가 부재한 실정이다.

운동본부(건)는 이러한 문제점 작년에 건설했던 학자지구회 추진위원회라는 상설 학자단체 주직을 통해 풀어야 할 것이다. 즉, 제2캠퍼스가 놓인 지지의 상황에 맞는 만전적 대안과 요구안, 같은 외대라는 한울타리에서 공동적인 사항이 전된 요구들은 서울캠퍼스와의 공동연대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현재 기자>

밝아오는 새벽이여 외대여

외대학보 600호 기념공모

주　　제 : 외대발전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생활속에서 느낀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외대발전에 대한 제언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모집부문 : －논문(50매 내외로 창발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생활글(15매 내외로 전외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사진(8×10 크기로 3점이상 제출해야하며 흑백, 칼라 모두 가능)
　　－노래(외대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창작곡이어야 한다)
　　－광고(가로37㎝, 세로17.5㎝ 외대학보 하단광고 형태로 완성된 창작품이어야 한다)
자　　격 : 외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
공모기간 : 3월16일(화)－4월25일(일)
상　　금 : －논문　당선 : 30만원, 가작 : 15만원
　　－생활글당선 : 10만원, 가작 : 5만원
　　－사진　당선 : 15만원, 가작 : 10만원
　　－노래　당선 : 15만원, 가작 : 10만원
　　－광고　당선 : 15만원, 가작 : 10만원
심사위원 : 추후공고
접 수 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961－4152(서울) 30－4112(용인)

외　대　학　보

사 설

대학교정에 다시 찾아온 봄

요즈음 대학캠퍼스는 마치 태풍일과후의 정적이 감도는 듯한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것이다.

굳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 어느 영국시인의 싯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 젊은이들의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울부짖음이 산천을 뒤흔든 4·19이후부터 이제까지 이나라의 대학교정에서 젊음과 낭만은 실종되었던 것이다.

대학교정에 군화소리가 요란하고, 탱크와 장갑차가 '활보'했던 암울했던 시절. 사복형사와 정보요원이 캠퍼스를 배회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정녕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묻혀져가고 있음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 착잡한 감정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1936년 군부의 흙물은 장화가 당시스페인 지성인의 전당이었던 살라만카대학교정을 짓밟았을때, 청스러운 학문의 진당을 욕되게한 극수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바스끄의 철학자 우나무노와 같은 지성인들의 외침이 이 나라의 대학교정에도 있었기에, 이제 대학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깊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욕되게 했던 수치스런 지난날의 대학교정은 이제 서서히 제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부나 긴 겨울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대학이 과감히 동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던 청상모리배와 정치꾼들이 이땅에 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지성인들의 교육에 전력을 무여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새출발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불온서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젊은이들에게 금기시 되어왔던 각종 문헌들이 빛바랜 도서관의 지하창고에서 풀려나와 양광이 찬란한 도서관의 서가에 진열되어 학문을 하는 젊은이들의 목마름을 추겨줄 수 있는 오늘이 아닌가?

편협한 시각에서 학문을 논하고 국제정세를 분석하던 과거의 옹졸함에서 벗어나, 대양과 같은 넓은 젊은이의 가슴으로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려하지 않은가?

그동안 강단에 뿌옇게 쌓여있던 먼지를 말끔이 털어내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다시 열려, 녹쓸었던 지성인의 머리에 다시금 번뜩이는 젊은이의 예지가 되살아 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답답하다 못해 미련하기까지 했던 과거의 우매함에서 벗어나 옴츠렸던 사지를 한껏 뻗어보고, 밤을 새우며 책과 씨름하고, 끓어 오르는 지성인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 나라, 내 조국, 이 사회를 단숨에 뛰어가 힘껏 한번 부둥켜 안아보자.

굳게 닫혔던 연구실문의 빗장이 풀리고, 냉기가 돌았던 대학도서관의 창문에 다시 화사한 봄볕이 내려 쪼이는 밝은 아침을 맞아 우리 다같이 내일을 노래하고, 이 사회, 이 민족을 다시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찾아온 봄을 맞이할 준비는 정녕 되어있는 것인가?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우리들 후손들에게 지나날 우리가 경험하였던 수치스런 대학캠퍼스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밤새워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며, 부디어진 지성의 칼날을 갈고 다듬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곧 먼동이 트려는 순간이다. 뿌옇게 밝아 오는 먼동을 저물어가는 황혼으로 착각하는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

휴간 공고

4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 관계로 본보는 2주간 휴간하며 다음호인 604호는 5월4일날 발행됩니다.

학교발전 재중흥 꾀할 시기

지난 4월1일에 열린 제14대 총학생회 주관의 정기학생총회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외대인의 현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정기학생총회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학생들간의 단결과 학교의 발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기학생총회는 그러한 단결과 발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의 부끄러운 모습만이 전부가 되어 버렸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동아리인 아웃사이더는 총회와는 무관한 내용의 외국곡과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공연진개로 총회를 여는 총학생회의 취지에 역행하는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축하공연은 총학생회가 보이려한 정기학생총회의 주 내용이 아니다. 그저 축하공연으로 끝이 났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축하공연의 내용과 형식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한 총학생회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총회에 관심과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뜬 우리 학우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더 큰문제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정기학생총회 준비부족과 학우들의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어떻게 학생들간의 단결과 학교발전을 논의할 수 있을까?

'조촐한' 정기학생총회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무성의함에 총학생회장의 연설은 힘이 없을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정기학생총회에도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하는 학교가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학생회장의 말은 듣는 이를 씁쓸하게 할 뿐이었다.

정기학생총회에 처음 참여한 새내기로서, 세시간에 걸친 이번 정기학생총회는 우리의 실체를 조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젠 우리가 다시 단결해 학교발전에 제중흥을 꾀할 때가 되었음을 역설하고 싶다.

<김유신 서학·할가리어1>

독자 만평

<박신일 서학·독어2>

흡산의 소리

짧지만 깊은 이야기

글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진정으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외대인이 함께 공감하고픈 이야기를 짧게나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참다운 목소리를 외대학보는 귀기울입니다. 한번 펜을 들고 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외대학보 '흡산의 소리'의 진정한 주인인것을 잊지마세요.

술벗이 아닌 청춘의 열정으로 대학생활을

준비학교때 대학의 물을 마시기도 전에 술을 먼저 입에대게 됐다. 사람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소주 이름을 먼저 알았고, 호프집에서 500cc값이 얼마인지, 동동주는 어떻게 생긴것인지를 먼저 알았다. 휴사 알코올이 먼저고 대학이 나중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전날 마신술 때문에 그 다음날 잠에서 깬후 쓰린속을 달래기 위해 2천원어치 약을 위장에 털어 넣었다.

신입생 수련의 날인 아침이고 모두들 활기찬 얼굴이다. 차안에서도 마냥 즐거웠다. 설악산의 겨울바람소리를 들으며 신·수의 첫날밤은 깊어간다. 노래도 분위기도 오르고, 신수의 밤은 깊어가지만, 선배와 후배의 좌석앞에는 맥주·소주병이 굴러 다닌다. 빨간 얼굴에 반쯤 풀린 눈과 손엔 연기나는 담배가 들려 있다. 명달아 신입생들도 입에선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도 뭐가 좋은지 연신 낄낄거린다. 좌석이 낯설다. 엊그제의 12시까지 줄린 눈을 비비며 한 공부가 오늘은 새벽을 밟아가며 알코올을 몸안에 쏟아붓고 있는지. 조용히 빠져나온다. 나도 놓아이라는 담배를 핀다. 누군가 다가와 옷으면서 말이나 붙여주었으면…. 내심 아쉽다. 몇백명이 왔어도 모두들 제방에서 문짝 닫고있다. 넓은 리조텔이지만, 아무도 없다, 외롭다. 담배가 벌써 다 타버렸다. 내버리기가 아쉽다. 문득 술이 생각난다. 얼청나게 마시고 또 뻗어 버릴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한다. 술집 사장은 참 돈을 많이 벌겄 같다. 이렇게 도와주는 이가 많으니까.

두번째 신수의 아침이 밝았다. 짧은 바늘이 '7'자에도 오지 않았다. 잠이 부족한것 같아 아쉽지만, 얼른 거울보고 내가 또 하루새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봐야 한다. 선배들은 아침엔 해장국이 나을거라고 했다. 하지만 깊게 줄선 보람도 없이 밥은 작고 국도 뜬장국이다. 단대 시간이 있었다. 완정히 엉망이었다.

대낮부터 술먹고 온것 같았다. 한 대학의 단대모임이 이렇게 계획성없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굿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회자의 두툼한 입술사이로 카랑카랑하게 우리과에 맥주한 박스가 시사됐다. 상이 왜 술로 대신되어진까. 혼자생각하는데, 좋아하는건 동기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것 같다. 오늘밤은 맥주병이 뒹굴어 다니는 대신 아예 맥주박스가 뒹굴고 있다. 벌게진 얼굴에 안주를 찾으려 전부 뒤집고 다닌다. 제미있는 녀석들 하면서도 내 의손에 중이접이 그두 맥주를 담고 내 잇몸을 적시며 헛바닥을 휘쓸고 지나간다.

꼬박샌 어제와 오늘에 몸이 나른하다. 차시트에 몸을 묻고 깊은 나라로 들어갔다. 잠깐씩 내가 입을 벌리고 자고있진 않을까 걱정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은 모양이다. 근처에는 거의 모두가 자고있었으니까. 7시간도 잠깐.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은 낯선 학교지만 반가움이 앞선다. 뒷풀이 한다. 또 술이었다. 밤은 거들었지만, 술에다 밤을 말아먹는 기분이었다. 괜히 끝까지 남아주는 여자 동기들이 고맙다. 급테안경를 씌았는데 테이를 밑에 숨었는지 아까 교문사이로 에들한테 묻혔는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는데……. 어디선가 '걸어서 저 하늘까지'라는 노래가 터져 나온다. 저 노랜 내 대학의 삶을 180°달라지게한 노래였다. 유년히 이쁘이 흰 여자 동기하나가 지노래부를 때 멋있었다고 하길래 애가 술이 취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내심 기분은 좋았다. 누가 좋지 않겠는가? 지기보고 멋있다는데.

이제는 술도 어느정도 받는 모양이었다. 속도 별로 쓰리진 않다. 체상시계가 시끄럽게 내귀를 두드린다. '저걸 확 부서버려' 겨우 2시밖에 안됐는데. 창문을 활짝 열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내방가득히 들어온다. 언제나 뜨는 해가 있기에 나는 항상 즐겁다. 우리의 청춘과 열정이 푸른 교정에 빛날수 있으면 한다. 사랑으로 다시보는 나의 사랑 외대여!

<서종오 동양·아랍어 1>

결과는 참된 보람을

몇번의 실패를 거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왔다.

대학의 낭만이라고 불리는 동아리에도 기입했다. 내가 가입한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에서 93년 첫 시업으로써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선배님들과 함께 영화상영 준비를 했다. 준비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영화를 학우들에게 보여준다는 보람때문에, 선배님들의 몇일씩 집에도 못들어가 꾀죄죄한 모습들을 보며 대학이라는게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노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느껴본다. 우리 후배(93학번 두명)들도 많은 것을 돕고 싶었는데 우리의 능력부족과 선배님들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만 해주었다.

우리가 어렵게 준비한 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명이라도 더 많은 학우가 이 영화를 보고서 영화속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이때까지의 피로는 가시고, 밝은 미소속에 이 영화의 막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7일(수) 오후 5시 30분, 우리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빨리 학우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5시 30분이 되어도 단 한명의 학우만이 들어와 있을때, 우리는 학우들의 무심함에 허탈했고, 또 어린 영화(노동자의 영화)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것같은 학우들의 말한마디는 '이세상 모든 것을 만들지만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된다.

우리는 먼저 오신분들에게 약속도 지키지 못한채 20분이 지난후 약1백여명을 모시고 넓지않은 지연대 강당을 더욱 넓게 만들며 영화를 상영했다.

뒷풀이 자리에 나온 같은 과 친구의 "가슴이 찡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았다"이 한마디에 사람이 없어 허탈해 한 우리 모두에게 단 한명이라도 우리가 상영한 영화의 의미를 보았다는 기쁨에 모두다 술 한잔씩!

8일, 목요일

우리 '이름없는 영웅들'의 영화상영시간에 노천극장에서 우리에게 통일의 물꼬를 터주신 임수경 선배님 '이름있는 영웅'의 환영대회가 있었다.

대중매체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선배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 영화준비도중 잠시 슬쩍 올리가 보았다. 많은 학우들 속에 들러싸여 더욱 위대해 보이는 그 모습은 왠지 영화속에 나왔던 '이름없는 죽어간 영웅'과 대비가 되는것 같았다.

우리들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영웅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날 우리는 전날보다 더 적지만 정코 부족하지 않은 관객들을 위하여 상영했고, 그 관객들 역시 뒷풀이까지 남아 우리의 '이름없는 영웅들'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새내기인 내가 느낄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얼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름없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앞에 보이는 영웅들에게 던지는 장미 한송이를 그들의 죽음속에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삼성 서학·영어1>

나도 등록금 3%만 낼래. —92 버들이—

우리 재단 양심에 털난 거 구경하려 갑시다!

—구경꾼—

조금 더 주시면 누가 베터저 죽을까 봐요?

—흑쥑이—

무슨 말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 순댕이—

어? 3%나 된단 말이야? 0%줄 알았는데

—깨벙이—

재단 전입금 늘려서 명수당에 오리 100마리를 사육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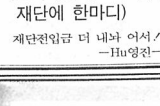
—취장—

재단 전입금 3%=등록금 ?%

—이줌마—

어디 이래서 지곡동 오겠어. 30%는 돼야지.

—지곡동 아줌마—



주제 : 재단 전입금 3%의 현실을 보며.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재단에 한마디)

재단전입금 더 내놔 어서!

—Hu영진—

학우들 용돈 3%씩 걷어서 줄테니, 학교를 떠남이 어떨지.

—93 자선가—

재단 전입금이 왜 3%인지 내게 말해봐 어으서, 냉큼!

—93EZ 철이가—

94년도에는 4%로 늘어 나려나…

—93 새내기—

외대발전 위한 지곡동표 조미료는 8%, 삼류외대 전락표는 3%(?)

—A, 91—

그렇게 먹고도 더 먹고 싶어요? 우린 아직 배고프다고요.

—굶주린 배—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자동차 편]

현대자동차 전자기술부 전기자동차 개발팀

늦어도 97년까지는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특명입니다.
98년부터는 무공해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미국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년여의 연구 끝에 우리는 시속 130km/주행거리 150Km의 무공해 전기자동차 4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GM, BMW, 닛산과 함께 세계선두그룹을 이루는 수준이며, 더욱이 그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 얻은 성과이기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생명인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나켈-메탈수소 배터리를 개발, 완성단계에 있는데 비해 GM, 포드, 클라이슬러는 최근에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최고시속 160km 총주행거리 20만km에 소음과 오염이 전혀 없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공해 전기자동차가 98년 캘리포니아를 달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무공해를 향한 쾌속질주—
미국의 '빅 3' 社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 무공해 전기자동차 4호 개발 —

現代

서울총학, 재단에 중기발전 요구

불성실시 재단대개혁 선포로 파국예상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8일(목)과 12일(월) '서울캠퍼스 중기투자 방안에 대한 1·2차 요구사항'을 공개질의서로 재단측과 대학당국에 발송하고 이에대한 답변을 오는 27일(화)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예결산공개 이후 또 한차례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 의해 개략적으로 제시된 요구사항은 우선 이문동 중기투자방안으로서 △기숙사의 설립 △고시원 이전 △실내체육관 건립 △어학당의 설립 △단대독립 강의동 건설 △교수의 확충 △교수 연구동 설립 등이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재원확보 방향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 공개, 외대의 장기발전을 위해 지곡동 부지를 캠퍼스 이전용도로 확정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러한 중기발전계획을 재단과 학교측에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39년의 빛나는 역사와 외국어의 명문이라는 외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고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을 일구어 내기 위한 학생들의 모교사랑의 눈물어린 몸부림"이라고 설명하고 "이에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회피할 경우에는 본교발전에 더이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 외대인의 이름으로 재단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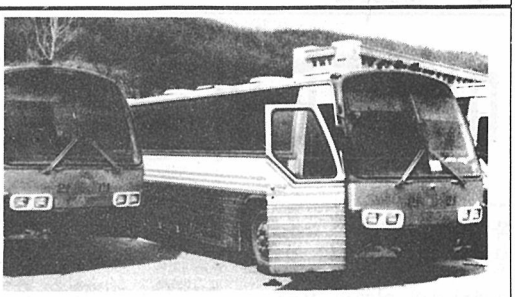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오는 14일(수)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를 폐기하고 '학생측 요구사항 이행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것을 서울캠퍼스에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15일(목)에는 1차 간부결의대회를 열어 중기투자방안 토론 및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16일(금) 서총련 출범식에 참석해 본교 학생측 요구안과 교육재정확보 사립학교법 개정을 선전할 계획이며 오후 5시에는 그린벨트해제 추진위원회 학생대표인 김지성(총학생회 총무부장), 변진선(사범대학생회장), 강창석(외말측 위원)과 이민수(서양어대 학자주체)와 각부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대학당국의 준비부족으로 연기되었던 그린벨트 추진위원회 회의를 귀빈식당에서 열 예정이다. 이자리에서 총학생회는 자곡동 그린벨트를 해제를 위한 방안을 세우고 캠퍼스 이전부지로 확정할 것과 회의가 연기된 사유에 대해 동문대표인 김시경씨와 유한종씨 그리고 직원대표인 사무국장과 수석부조합장에 연기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최종답변 시한인 27일(화)까지 재단측과 대학당국의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3차간부 결의대회를 거쳐 30일 집회를 상정, 본격적인 대재단 투쟁을 결의하고 재단이사진과 박승준이사에 대한 불신임투표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재단측과 대학당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총학생회와 각단위 학생회가 예년과 다르게 이번 중기발전 학생측 요구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 이후 재단측과 대학당국의 성실한 답변이 없는 한 사태의 추이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만이 아닌 각급 학생회와 대다수의 학생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재단측과 대학당국에 대해 어는때 보다 더 불신감을 갖고 있어 사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번질것으로 예측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재단측과 대학당국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부>



초점 용인캠퍼스 대운동장 아래 공터가 경기·대원여객 회사의 예비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차번호판까지 떨어져 나간 폐차까지 주차돼 있다. <이현재 기자>

시국관련 제적생 이번학기 복적가능

외복추위, 피해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

제입학 복적 심사 위원회(위원장 박원석법대학장)가 93년 1학기 제입학 대상자와 원서 제출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본교 제적생들의 복적이 이번학기내에 가능하게 됐다.

제입학 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화) 1차 회의를 열어 93년 1학기 제입학대상자를 87년 7월 11일에서 93년 2월 24일사이에 제적된자로서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자로 결정하고 순수 미등록제적자는 2학기때 복적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교 제적생 복적 추진 위원회이하(외복추위)는 4월9일(금) 총회를 열어 '제입학 절차 및 금하기 일정'으로 발표된 제입학 복적 심사 위원회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복추위는 아직도 대학당국과 해결을 보지 못한 사항인 93년 1학기 제적대상자도 복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본인의 심수 및 불합리한 학사행정에 의해 제적된 순수 미등록 제적자도 자신이 원한다면 1학기내에 복적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외복추위 위원장 최원일(법·법학 3, 6·3관련 제적) 군은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그이유가 어떠하던간에 모두 복교를 요구하는 것이 외복추위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6·3관련 제적생들을 비롯시국관련 제적생들에게는 단순복교절차 만이 아닌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측의 공식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복추위는 이외에도 복학시 12학기내 졸업제한 규정이나 93년 1학기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점피해와 등록금 문제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 교통문제 해결책 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 동서울 터미널에서 유일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타는 곳이 있다. 외대행 버스를 타는 곳이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버스 한대를 채우는데 걸리는 1분을 위해 30미터 이상 줄을 서서 30분 이상의 아침시간을 허비한다.

교통문제는 용인캠퍼스가 대학당국의 무자 미비로 인한 통학버스 부족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중론이다.

여기서는 교통문제의 핵심사안인 증차문제와 신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양재역에서 출발한 버스가 학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빠를때 35분이면 가능하다. 이 시간은 같은 시각 서울캠퍼스까지 소요되는 1시간 보다 빠르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바로 용인 캠퍼스의 교통문제는 거리보다는 통학버스 확보율 미비에 따른 대기시간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학당국의 입장은 영업용 버스는 이익이 적어, 학교버스는 돈이 없어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운동장 아래 교정에 부상으로 번듯이 주차된 영업용 차량이 그렇게 많아도 증차할 차가 없다는 말이 학생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4천명의 학생들이 서울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에도 학생들이 통학시 이용하는 학교차량(스쿨버스)은 1대도 없다. 학교버스는 교직원 전용이라는 푯말을 앞세운 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스 표면에 외대라고 표시하고 학교·양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외부업자가 학교에 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강서, 경기지역 대책있다

한정된 통학버스의 출발지에서 문제를 찾아보자. 현재 통학버스의 출발지는 동서울터미널, 양재역, 사당역 등 서울 남동부에 한정된 여건으로 신촌, 목동 등의 강서지역과 안양, 수원, 인천 등지의 경기지역 학생들은 기존 노선에 중차되더라도 통학의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있다. 학교를 출발, 용인 인터체인지를 통해 영동,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안양을 거쳐 구로, 신도림역까지 가는 방법이다. 경유지를 살펴보면 학교, 용인 인터체인지, 의왕, 안양, 광명, 구로, 신도림역이며 소요시간은 신도림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이다. 이 노선은 중덕천을 거쳐 동수원 인터체인지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수원거주 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3시간의 등교시간이 걸리는 안양지역 학생은 최고 2시간의 절약이 가능해지며 강서지역의 학생들도 2호선을 이용, 강변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수 있다.

강북지역 노선의 경우는 중부고속도로를 구리까지 이용하여 망우리를 거쳐 휘경역까지 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경우 55분이 소요되며 교직원 버스와도 연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성북지역 학생들이 강변역을 가기위해 용산행 시간표에 맞추어 부산을 떨지 않아도 된다.

버스 확충방안

이러한 신노선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버스확충 방안은 있는가?

지난주까지 본보에서 건설비를 원칙대로 재단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통학버스 구입에 쓴다면 60대 이상을, 외부 기부금이 그대로 적입된다면 고급버스 7대 이상을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30여대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117번과 같이 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는것도 차량증차의 한 방법이다. 천호동, 하남을 거쳐 광주까지 운행되고 있는 113번 노선의 연장은 강동지역 학생들이 버스를 한번만 타고 학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양재역을 출발하여 분당까지 운행하는 200번의 학교까지의 연장이다. 이는 분당선 전철의 완공이후는 물론 주말과 방학 등 연중 무휴로 운행하여 왕산의 공동화를 막는데 큰 의의가 있을것으로 평가된다.

차량 증차의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 지입제 버스의 확충이다. 지입제 버스란 버스 인도금을 기사가 내고 할부금을 학교가 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행돼 왔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는 8대의 지입제 버스중 5대의 할부금으로 지급해 온 1억원을 계속 부자한다면 증차가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예산 중액이 거의 없는 교통지원금을 등록금 인상률 수준에만 맞추어 인상하더라도 증차가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대학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이다. 총무처에서는 예산청구서를 작성하는 실무 부서이면서도 아직도 예산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문제가 10년전보다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나 용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직도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교통문제임을 감안하여 대학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임성은 기자>

안양, 강서지역에 신노선 절실

지입제버스 확충 가능해

생모와 계모

빈인자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다. 신정부의 인사과정이나 'Y·S 개혁드라이브'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군부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앞의 정의를 채워 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민주정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김영삼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칭하기엔 무언가 찜찜하다.

분수처럼 솟는 민주대개혁 요구를 대하는 정권의 모습은, 밤을 새우며 아가를 돌보는 '생모(生母)'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젖병이나 물리고 모른 채 하는 '계모(繼母)'의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민주정부는 민초를 하늘 같이 여기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정부이다. 자신의 개혁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화려한 장식만 하는 정부가 아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악'을 뿌리째 청산하는 것이 그 출발에 선다.

그중 으뜸은 전교조 해직교사나 해고 노동자들 같이 정당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자신의 생계를 박탈당한 이들이 본래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흡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만남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보다 더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군사정권에 교단을 짓밟히고 거리를 방황해야 했던 1천5백여 참교육 선생님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 복직'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정부라고 자찬하면서 군사독재 시절 탄압의 대상이었던 전교조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 노동자등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달전 노동부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기억한다. 해고된 아들이 복직이 된다고 즐거워 했던 노동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의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아직까지 단 한명의 노동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에게 있다.

가식적인 대화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복직을 권유하면서 민주노조활동을 '불온' '용공'으로 매도하는 정부에게 잘못을 돌리자. 교단이 아닌 거리를 서성이고 있는 선생님들과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중인 노동자들이 있는 한 문민이나 민주는 거짓인 것이다.

정부와 민지당에 요구하자. 진정 개혁하고자 한다면 관계법을 개정하고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을 제자리에 세게하라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과거 자신이 즐겨쓰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진리의 참의미를 일깨워 주자.

<황효순>

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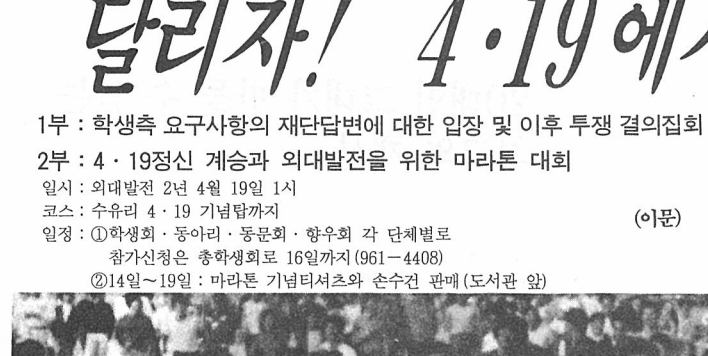
임

수습기자

강민홍(서양·독일어1)
김선아(동양·아랍어1)
김인옥(사범·영교1)
남정미(서학·유고어1)
류동우(서양·희란어1)
신동현(서학·항가리어1)
오미나(사범·한교1)
윤병석(상경·경제1)
윤주상(서학·항가리어1)
이수미(인문·사학1)
이승호(정과·신방1)
정성헌(동양·이란어1)
조지혜(사범·한교1)
조지훈(서양·영어1)
한상준(서양·독일어1)

이상 15명 4월 13일자

(1)뇌통수



달리자! 4·19에서 외대발전까지!

1부 : 학생측 요구사항의 재단답변에 대한 입장 및 이후 투쟁 결의집회

2부 : 4·19정신 계승과 외대발전을 위한 마라톤 대회

일시 : 외대발전 2년 4월 19일 1시

코스 : 수유리 4·19 기념탑까지 (이문)

일정 : ①학생회·동아리·동문회·향우회 각 단체별로 참가신청은 총학생회로 16일까지(961-4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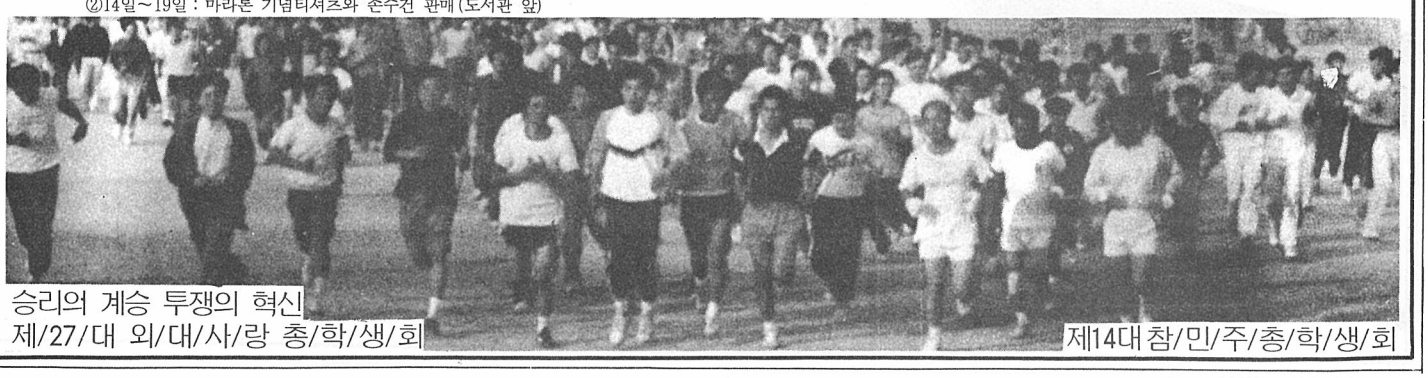
②14일~19일 : 마라톤 기념티셔츠와 손수건 판매(도서관 앞)

4·19정신 계승과 왕산발전을 위한 마라톤 대회 (왕산)

일시 : 4월19일(월) 오후 2시

코스 : 학생회관앞에서 왕산주유소까지 왕복

신청및 접수 : 4월16일(금)까지 총학생회실이나 각단대학생회실



미국주도의 동북아 견제세력, 중국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국제연합의 어제와 오늘

정 환 우
<본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북한 핵사찰 문제의 안보리 이첩에 대한 중국입장

북한 핵사찰문제가 UN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둘러싸고, 지난 겨울에 남한과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준전시상태에 돌입하는 등, 한반도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남에 따라 그간 고조되었던 군사적 긴장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UN안보리 이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는 UN을 무대로 한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이런 와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중의 하나인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새로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사찰문제의 안보리 이첩을 반대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반대하고 있다.

근래에,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지적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다른한편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역적 신냉전 상황이 대두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핵사찰문제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입장표명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라는 사회주의국가가 갖는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구조의 해체 이후 중국의 세계정세인식과 대외전략을 고려하면서 대동북아정책과 한반도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과거의 양극체제에서 중국은 국가들의 이념적 지형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를 모색하기 보다는 각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이념적으로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라 할지라도, 소련이 중국에 대해 '패권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다면 소련이 바로 중국의 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혁명투쟁기간에 소련이 보여주었던, 이른바 '대국주의'경향은 60-80년대에 고조되었던 중소분쟁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양극체제에서 중국은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때에는 미국을 이용하여 소련에 대항하고, 어떤때는 소련을 이용하여 미국에 대응하며, 어떤때는 양자모두에 대항하기도 하는, 이른바 '전략적 삼각관계'를 운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소련과 소련공산당의 해체는 중국에 두가지 면에서 충격을 주었다. 하나는 소련이라는 사회주의정권의 몰락이 중국에도 파급될 위험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해체에 의한 기존 양극체제의 와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세계질서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와관련하여 중국은, 안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의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는 일단 세계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서, 중국자신도 '안정적 다극화' 구조안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역에서 양산군 · 이붕의 환영을 받는 김일성주석.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UN안보리의 변수다.

안정된 동북아 질서 안에서의 자국 중심적 외교

북한 핵문제 UN안보리 통과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에 의한 이른바 '신세계질서'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한편, 지역적 분쟁에 대처해 나가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위에 언급한 대외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등이 필요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동북아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모든 국가와 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대만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만독립요구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처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라 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카드로 일본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한반도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군의 주둔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하나의 '현실'로서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되게 하거나 '개방화'의 정도로까지 확장되는데에는 반대하는 수준에서,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남북당사자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과거 중국은 슬스로가 미약하나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의 가입을 거부해왔다. 그 이유는 소수의 국가가 핵무기를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도 여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 패권주의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반패권주의 외교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1년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는데, 여기에는 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지속된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쳐라는 점과, 소련의 해체에 따른 기존의 '전략적 3각관계'의 와해에 의해 중국이 누렸던 중요성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펑 중국수상이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조약을 분명히 준수할 것이며, 남북한 모두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바대로,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한편,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양극체제의 해체이후, 여타의 비핵국가들, 특히 반미성향의 국가들—미국의 표현에 의하면 '비이성적인 국가'이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신세계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왔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대동북아전략과 상치될 수 밖에 없다.

다른한편으로, 중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의 지위에서 북한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즉 미국은 안보리에서 중국의 동의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중국은 이 과정에서 '조정자'로서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서 최소한 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안보리에서의 대북한 제재결의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닌가를 속단할 수는 없다. 단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중국이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에 동참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내세우기 보다는 자국의 현실적 입장을 우선시하면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기치아래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국 중심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긍할 만한 일이다.

요컨대, 중국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2중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바, 크게보아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 핵무기의 '실질적' 철수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방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남북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는 객관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객관적 상황임과 동시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가 남 · 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상임이사국의 전유물, UN

UN안보리, 소련붕괴후 미국의 대외전략수행 수단으로 전락

국제 연합의 과거와 현재

최근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가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면서 UN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UN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미국과 소련등의 51개국에 의해 결성되었다. UN결성의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대규모 전쟁의 방지와 현상유지이다. 그리고 UN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로서 양극체제하에서 국가간 분쟁의 대부분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오가면서 토의되고 결정되었다. 총회는 토의 · 심사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UN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뿐으로서, 이사국들은 2년마다 지역안배의 원칙에 따라 15개국이 선정된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은 5개국으로서 이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상임이사국중 어느 한국가가 기권하거나 결석하더라도 부결로서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2차대전 전승국들로서, 중국은 1971년 대만이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미 · 소 양극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익에 저촉되는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안보리의 결의가 집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전쟁에서 소련대표의 결석을 이용해 미국의 주도하에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었을 뿐이고, 미국과 소련의 이익이 일치되었던 인도네시아, 수에즈문제와 싸이프러스분쟁등에 대한 해결이 거의 전부였다. 또 미국이나 소련 당사국에 의한 것이거나 이들 국가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곧 세계전쟁을 의미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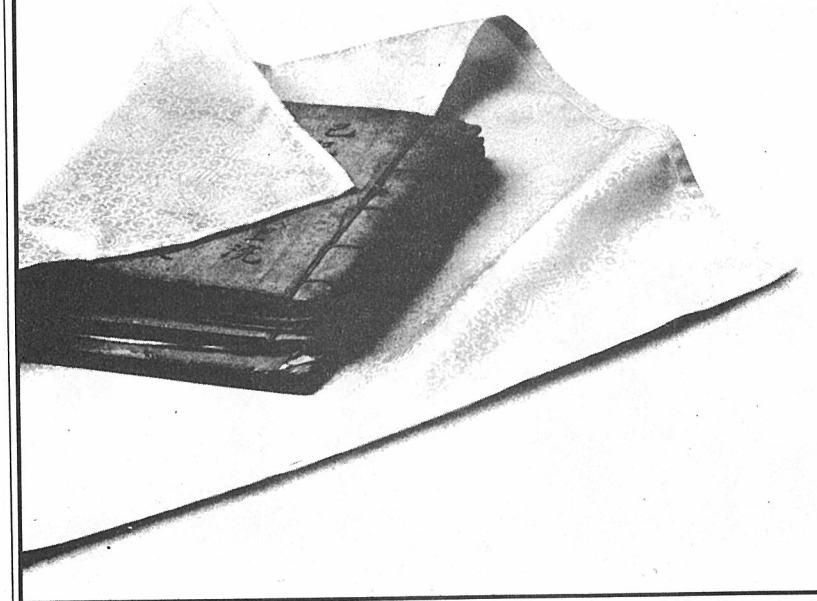
또 양극체제하에서 초기에는 소련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지 못하자 미국은 총회를 많이 이용하고자 했고 60년대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이 증가하자 양강대국은 안보리에 치중하고자 했으며, 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의 상임이사국들에 의한 거부권 행사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세계적인 역량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강대국들로 이루어진 안보리상임이사회국들에 의한 거부권 행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나타낸다.

양극체제의 해체는 UN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91년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 결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중국만이 기권하고 소련을 비롯한 일방적 결정이 어느정도 억제되었다는 측면도 있었으나, '소련이' 해체된 현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등 서방강대국에 의한 독단적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과거에 비해 UN은 미국 등 서구자본주의국가들이 보다 자유롭게 그들의 의도를 관철하거나 정당화 할 수 있는 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과거에 비해 미국은 자기의 대외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UN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력의 쇠퇴를 포함한 미국의 상대적 지위하락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이 내세웠던 이른바 '다자간 협조주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UN은 보편적 안전보장기구의 필요성이라는 '외양'과 강대국의 대리기관이라는 '내용'이 갈등하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POSCO메세지 먼학편



20대인 그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산

"지혜의 샘이 흐르는 진리의 탐구"
20대인 그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삶의 떡잎이 되는 지혜, 지식의 재산-
바로 지금이 그 최고의 재산을
가장 크게! 가장 알차게! 가장 왕성하게!
키우고 모을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4월11일 부활절을 맞아 고찰한 해방신학

민중의 고통과 삶을 담보한 신학

고 재 식
<한신대 기독교사회
윤리학교수>

미국등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려는 실천적 관점에서 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에 대해 분석

신학은 그 앞에 붙는 형용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신학이 형성된 사건과 공간의 제약, 즉 사회적 지평의 차이에따라 신학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1960년대에 태동하여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남미의 해방신학이다. 이 해방신학은 1970년대에 신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까지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이후 지금까지 5백여년 동안 남미 대륙은 서구열강들의 식민 종속국으로 살아올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스페인과 포루투갈의 식민지로, 그후 영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더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결국 미국이 남미를 독점하게 되었다. 식민 종주국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식민 통치 방식이 구식민주의에서 신식민주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외에 남미인들에게 변화란 점점 더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 자본주의의 계속되는 수탈과 억압 과정 속에서 교회가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서구 자본주의및 제국주의의 침탈의 선봉에 함께 서서 그들이 죄악을 종교적으로 묵인내지 합리화시켜 주는가 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통속교묘한 논리를 앞세워 민중을 현혹시켰던 것이다. 남미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전체 재산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 농민의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남미인들의 처참한 현실,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희망도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속에서 남미 민중들은 자기 편에 서있지 않은 교회를 떠나갔던 것이다. 더이상 교회에서 희망을 볼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더이상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불가능한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그 안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민중들의 근본적인 도전 등이 해방신학의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보겠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남미 사회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려는 실천적 관심에서 출발되어 그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앞서 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수많은 성직자, 신학자, 평신도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중해방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해방운동을 촉발시킨 몇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 요인들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것 같아 간략히 소개한다. 그 첫째로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방법론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신학은 철저히 자신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해방을 추구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바로 이 투쟁의 경험이 해방신학의 힘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해방신학과 전통적인 서구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해방신학의 특이성과 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경리해 보겠다.

첫째로, 과거의 서구신학은 계시를 통해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는 일지체에 역점을 두었지만 해방신학은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방신학이 출발하는 점에서 서구신학과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관심하기 때문에 서구신학은 전통신학을 주장하는 반면 해방신학은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관심하기 때문에 정통 프락시스를 강조한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일 보다 세계를 변혁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쏟는다.

둘째로, 과거의 서구신학은 성서를 먼저 읽고 성서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반면, 해방신학은 현실 속에서 경험을 통해 성서를 이해하려고 한다. 다시말해 서구신학은 연구실 안에서 성서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한 후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반면, 해방신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하면서 그 경험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이해하며 안내를 받는다고 하겠다.

셋째로, 과거의 서구신학은 기독교의 구원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반면 해방신학은 구원을 역사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서구신학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우리 인류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대신, 해방신학은 오늘 여기라는 역사적 지평에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체가 해방의 출발점이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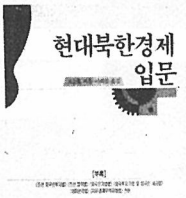
넷째, 과거의 서구신학은 기독교의 사명을 모든 대상을 향한 무차별적, 보편적 만민사랑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해방신학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사랑법이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요, 특히 예수의 사랑법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서구신학자들은 해방신학자들을 향하여 너무도 상황에 매몰된 나머지 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보편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해방신학자들은 오히려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는 신학은 허구요,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실천할 길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방신학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서구신학과의 두드러진 차이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신학을 말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민중해방 운동의 결과이지 그 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무시한 채 해방신학이 말하는 신학적 이슈나 논쟁점들만을 논하는 것은 해방신학을 곡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프락시스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중신학, 민중해방 운동의 바탕과 유리된 채 관념적으로만 발전되어 가는 민중신학, 그래서 민중의 고통과 삶이 담보되지 않은 민중신학이 범했던 과오를 그대로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남미 해방신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한다. 해방신학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다른 점은 우리가 보다 성심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우리 사회를 분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분단상황 속에 있는 한반도 전체를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선교적 과제중 앞으로 한국교회와 민중신학이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통일이라고 하겠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일, 통일된 후를 예견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 일, 반통 세력과 맞서 투쟁하는 일, 이 모든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신학이 진정한 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책

'폐쇄적이고 못사는 나라'로 인식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바로잡는 지침서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91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 붕괴'는 동·서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탈이데올로기화, 신보수주의를 강화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의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그것의 성공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주체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역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정책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총5장으로 구성된 이책은 해방전의 경제상태에서부터 현재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까지 역사적·이론적·정책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1·2장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는 해방전 일본식민지하의 경제를 반제반봉건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2단계에 걸친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해방이후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화 정책과 민족분단정책에 의한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남한보다 혁명발전에 유리했던 북한에서 먼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민주기지'를 창설한다는 전략적 방침과 함께, 반제반봉건혁명의 필수과제인 토지개혁·중요산업의 국유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또한 이전의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경험적 단계·대중적발전단계·최종적 완성단계로 진행되는 농업협동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경제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동시에 수행한 북한식 협동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개'와 제4장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건설' 부분에서는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기술적 토대축성과 함께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립적 민족경제 건설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제적 경제협력에 반대하고 경제의 민족적 폐쇄성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등·호혜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야말로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경제관리체계' 편에서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라는 북한의 독자적 경제관리체계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경제관리는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도덕적 지주와 물질적 지주를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된 이책을 앞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경제를 이전의 관련·보수학자들이 바라보던 시각과는 달리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기술적·정책적으로 북한경제를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현실사회주의권이 고민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에 관련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자세하게 서술되지 않음으로써 일정정도 단절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이책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현대북한경제 입문서'로서 그동안 '폐쇄적이고 못사는 나라'로 인식된 북한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적절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학|술|단|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우호 정책의 장래에 대한 제언

지난 8일(목) 본교 무역대학원 원우회 주최로 외국인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와 블럭경제화 되어가는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연회의 연사를 맡은 오가와라시로(일한협력위원회 전무이사)씨는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역사적 부채의식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계속 겸허한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강연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기본조약비준 당시 일본 외상이 한국에 대해 사죄한 바있는데도 한국은 5공, 6공에 거쳐 계속 사죄를 요구해오고 일본은 겸허히 받아들여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 일본인은 반감을 갖을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어쩌면 식민통치는 역사적 필연일 수도 있는데 한번만 하면 되는 사과를 필요 이상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들어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는 우수한 제품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품을 보면 일본산 40%, 대만산 20%로 외국의 우수한 부품을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라며 기술개발의 부진함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지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한국과 독일·프랑스·일본간 논의되는 한국고속철도 공사도 일본이 맡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강연회는 학술적인 의의를 가질만큼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지만 일본인들이 한반도 침탈시,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잘 보여준 강연회였다.

엔트로피 (Entropy) 법칙

소금상자

엔트로피 (Entropy) 는 그리스어로 변화 (trony) 와 에너지 (energy) 의 합성어로 어느 계 (system) 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와 사용불가능한 형태가 있으며 그 총량은 일정하다. 예를들면 석탄을 태워도 에너지는 탄산가스등으로 변하여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즉 에너지 손실은 없지만 다시는 그 석탄을 사용할 수 없다.

엔트로피는 더이상 일로 바꿀 수 없는 에너지, 즉 사용불가능한 에너지의 척도로 엔트로피의 증가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감소를 뜻한다.

지구는 처음에 사용가능한 에너지로 가득찼으나 이것이 갈은양의 사용불가능한 에너지(엔트로피)로 저절로 바뀌어 가치없는 쓰레기더미가 되는 것이다.

모든 에너지가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분산되는 엔트로피가 최대인 날은 지구 최후의 날이 된다. 원폭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지구종말이 아니라 엔트로피법칙을 통한 최후인 것이다.

학적관련 주요 규정 안내

졸업에 관한 사항

1. 조기졸업

가.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 제 2학년 제 2학기까지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그 성적의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학생은 매학기 개강초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신청함.

나. 조기졸업 결격 대상자 :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매학기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1개 학기라도 3.75 미만일 때 또는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0 미만일 때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2. 졸업사정

가. 졸 업 사 정 대 상 자 : 8회이상 등록(조기졸업 대상자 7회) 을 필하고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법과대학 150) 이상자로서 해당학기에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별표 : 졸업사정 교과과정 영역별 학점 현황)

나. 학 점 계 산 : 다음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않으니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1). 통일한 교과목의 이중수강으로 이수한 학점
2). 1년 속강 교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학점
3). 시간표상의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
4). 시간표상의 교과목 학점을 변경하여 신청한 교과목
5). 수강신청이 누락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
6). 해당학년의 최대 이수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학점

다. 사정 결격자
1). 8개학기 중 1개학기 성적이 완전히 없는 자
2).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00 미만인 자(학칙 제42조)
3). 졸업 해당학기에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전 학기 합격은 무효)
4). 교양, 전공, 부전공, 교직과목 등의 각 영역별 학점이 부족한 자(학칙 제41조)

라. 졸업사정에 결격되거나 저촉되는 사례
1). 각 영역별 교과목을 중복으로 취득한 경우(교양, 전공, 부전공, 자유선택과목)
2). 전공학점을 자기 부전공 및 타 학과전공과목에서 취득한 경우
3): 교양필수 및 필수선택과목을 미취득한 경우
(국어작문, 체육, 교양영어, 한국사, 국민윤리, 제2외국어)
4). 교직과목(기본공통과목) 을 부전공과목에서 취득한 경우
5). 계열기초과목을 미취득한 경우

졸업사정 교과과정 영역별 학점

영 역 별	이수학년	동, 서양어(학)	사범	*정책·상경·사회	인문	*자연	법과
국어작문	1	3	3	3	3	3	3
체 육	1	2	2	2	2	2	2
교양영강독1	1	0	0	4	4	4	4
교양영강독2	2	0	0	4	4	4	4
교양영언어실습1	1	0	0	2	2	2	2
교양영언어실습2	2	0	0	2	2	2	2
A. 교양필수 계		5	5	17	17	17	17
국 사	1	3	3	3	3	3	3
국민윤리	2	3	3	3	3	3	3
제2외국어1	1	4	4	6*	4	6*	4
제2외국어2	2	4	0	0	0	0	0
B. 교양필수선택 계		14	10	12	10	12	10
C. 교양선택 계	1-4	19	15	15	15	15	15
계열기초	1	4	4	4	4	6	4
전 공	1-4	65-77	63-69	65-77	64-73	63-75	95
D. 전공필수, 선택 계		69-81	67-73	69-81	68-77	69-81	99
E. 부전공, 자선 계	2-4	21-33	21-27	21-33	21-30	21-33	9
F. 교직 계	2-4	0	16	0	0	0	0
G. 총계(A+B+C+D+E+F)		140	140	140	140	140	150

*. 표시 대학은 제2외국어1 교과목을 제 1학년과정 제 1, 2학기에서 이수하거나 교양선택 6학점을 대체 수강함.

*. 사범대학은 전공과정 (각학과 교과교육론 2학점,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 2학점) 에서 4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누락시 졸업 불가)

#. 졸업예정자는 변경된 연락처를 필히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해당 학과로 알려 주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음.

교 무 처

□재산공개 파문을 보며

증상만 건드리고 근원 도려내지 않은 재산공개

지난 3월22일부터 시작된 민자당 재산공개가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 확실히 이번 재산공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노력(?)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사회 부패구조를 '빙산의 일각'이나마 파헤쳤다. 그리고 잘못된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요즘 "호지부지하게 끝내지 말라" "기대를 잔뜩하고 있었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왜 이러느냐"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봇물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다.

'부럴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언론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재산공개 파문이 그 의의성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부엇인가. 그것은 지난 3월말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연기'에 대한 부당성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김영구 민자당 원내총무는 20여년 묵혀온 목동 나대지 1백여평을 최근에 4억5천만여원에 매각했다. 또한 엄삼탁 병무청장은 지난 5월 사들인 이태원 저택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월말, 20여원에 서둘러 팔았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의원, 관료 등이 이번 재산공개를 앞두고 자신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난 3월29일 열린 민주당 주최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공청회'(사진 : 시사저널)

바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추적이 가능한 부동산 등을 피하고 은폐가 가능한 현금으로 바꾸면서 실시된 재산공개가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병의 증상만 건드리고 근원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금융실명제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공개는 그 과정상에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덕성 회복이라는 의식전환의 측면에서 5공 청문회보다 백배 더 효과가 있는 조치였다"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 부색하게 이번 재산공개는 반을 확대하려는 도구로 이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이 자신의 순수성(?)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산사찰'과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적 바탕위에 이번 사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였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군사정권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현 정부가 제도적 개혁없이 칫 단추를 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민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국민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의 아들이 11개동 75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자신의 이름으로만 45만여평의 땅과 20채의 주택·건물을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민자당 김문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만 서울, 강릉, 원주 등 전국에 걸쳐 대지 22곳 1만2천3백여평, 임야 11곳 44만3천여평 등 모두 46만여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들 땅 외에도 서울, 원주 등지에 20여채의 주택·건물을 소유해 전국에 모두 59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계순 민자당 고문은 자신과가족 명의로 연고가 없는 충남 서천, 경기 화성과 구리 등 전국 9곳에 걸쳐 4만1천여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외에도 부인명의, 아들 명의로 땅따먹기를 한 졸부들이 고위층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서 들어난 것이다.

87-91년 5년 동안 땅값 21%나 올랐고 1천조원이 토지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현실을 접하며 김영삼 정권이 할일은 명백하게 주어진 것이다.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와 땅 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조사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두가지 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소유편중도와 땅값, 들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 불로소득에 대한 자본이득 환수를 추진할만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유휴토지에 대해 높은 과세를 매길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또한 요구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은 '돌팔이 의사'처럼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아무 약이나 건성으로 주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끊임없이 '고통분담'과 '임금인상 억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고통은 누구로 인해 발생했는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집단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그런 집단이 이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

〈김남중 기자〉

부동산을 무기명 금융상품으로 바꿔 실제자산 공개 안해

불로소득에 대한 자본이득 환수제도 정착시켜야

현금으로 돈을 바꾸고 그 돈으로 지하철채권 등 '장기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들이는 것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실제로 최근 명동 입대의 사채시장에서는 채권을 매입하려는 신규 고객이 늘면서 채권값이 크게 올랐고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규모가 늘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무기명으로 지급을 굳힐 수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재산공개 과정에서 밝혀질 위험이 없다. 이뿐만아니라 외국계 은행 등에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로 맡겨둔 비지금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국 돈의 입지를 좇을 수 있는 김인 금융실명제가 실시 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공개의 빛이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단순히 여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몇몇만을 징계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민자당내 민정·공화계 의원들이 민주계 의원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정계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돈이나 재산이 없는 민주계에서 재산이 비교적 풍부한 민정·공화계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설제로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민자당내 중진 민정계 의원들의 입지는 민주계 초선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내부권력투쟁에서 주세력을 압도하면서 당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도구로 이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이 자신의 순수성(?)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산사찰'과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적 바탕위에 이번 사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였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군사정권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현 정부가 제도적 개혁없이 칫 단추를 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민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국민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의 아들이 11개동 75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자신의 이름으로만 45만여평의 땅과 20채의 주택·건물을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민자당 김문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만 서울, 강릉, 원주 등 전국에 걸쳐 대지 22곳 1만2천3백여평, 임야 11곳 44만3천여평 등 모두 46만여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들 땅 외에도 서울, 원주 등지에 20여채의 주택·건물을 소유해 전국에 모두 59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계순 민자당 고문은 자신과가족 명의로 연고가 없

◇전교조와 교육부의 해직교사 복직 논의

지난 2월1일 전교조 위원장단이 해직교사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들일했었다. (사진 : 시사저널)

5년만에 처음만나 '생색내기'

교육부, 전교조…원상복직과 교원노조 인정 여부 놓고 마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허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해야

92년 대선 다음날, 한거레신문 만평에는 소주병을 옆에 두고 책상위에 쓰러져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가 그려져 있었다. 전교조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김영삼후보가 당선되면서 전교조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이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그리고 그날 통시에, 전교조 활동을 지지한 교사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각 학교에 전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세는 전교조를 불법화하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해직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2월 1일, 전교조 위원장단이 해직교사 전원의 무조건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하여 8일 오전, '양심수 전원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총력주간'이 선포되었다. 이 기간에 활동을 벌인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 운동 협의회, 불교인권의원회, 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협의회등 각계각층의 한 목소리로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함성으로 인해 문민정부를 지치하는 김영삼정권은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했다. 김영삼씨의 대통령당선이 확실해지지마자 전추위 교사들을 징계·해직시키던 그 오만함은 화해의 몸짓으로 바뀌어갔다. 결국 지난 8일, 전교조 결성 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장관과 전교조위원장이 마주앉아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만남에서 교육부는 '교단복귀'라는 대명제에 일단 수긍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직의 원칙과 방법면에서 두 당사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법조항과 여건 등 갖가지 언어로 둘러싸여 있는 이 '차이'의 핵심은 전교조 인정 여부이다.

먼저 전교조의 주장을 보면 조건없는 일괄 원상복직을 요구한다. 모든 해직교사들을 무조건 해직 당시의 조건, 그 자리에 그대로 복직시키고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해직기간의 임금도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은 해직당시 상황의 부당함과 전교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원칙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해직교사의 복직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3년 이상 교육경력자의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조항을 들어 신규특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직 당시 실정법 자체가 잘못 됐다는 판정이 나지 않는 한 원상복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기간의 임금보상 역시 거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1백여명의 형사처벌자와 1백여명의 징계파면자들도 복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의 사면·복권조치와 교육부의 행정사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해직당시 징계 관련법에 우선하는 '해직교원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신규임용형식이 아닌 원상복귀를 시키고 임금보상을 받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전교조에서 집계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는 1천 8백여명에 이른다.

사실 한두 차례 회담으로 합일점을 찾기에는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1천 8백 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돌아갈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문제도 만만치 않다. 지금 상태에서도 복직의 방법적 원칙에서부터 법위,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처리 등의 문제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교조를 인정할 경우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노조를 금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교원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교원노조가 교육민주화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1월 25일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V) 16차 총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교원노조가 공동으로 제출한 '전교조 인정과 1천 5백여명 이상의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긴급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시킨 일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전교조에 대한 우리정부의 탄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교육민주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는 정부가 그들의 개혁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 합법화는 교원들의 수업거부와 같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을 개선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교조 합법화에 따라 지금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하지 못한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혜 기자>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징집을 면제한다!

89년 3월 개정된 현행 병역법 시행령의 103조 1항 1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자면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양심수가 다시 다른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와 도합 3년의 수형생활을 마쳐도 '단일 사건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집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일반사범의 입영순위를 후위로 조정하여 징집면제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유독 시국사범들에게만 편파적으로 행하여지는 불평등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은 본 시행령이 시국사범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규정이며, 그 일관성을 잃은 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온 것입니다.

저희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요구는 89년 3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88. 8. 1~89. 3. 25 : 병역법 시행령 103조=죄질에 상관없이 1년 이상형 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징집면제)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군내의 비민주적 관행과 양심수에 대한 녹화사업이나 프락치 공작등 각종 탄압을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자는 징집대상에 포함된다.

부당한 병역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전국집회 및 병무청 2차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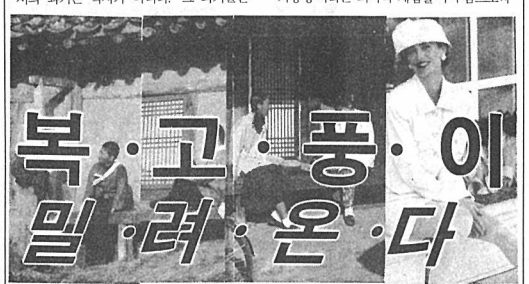
일시 : 4월 15일(목) 2시

장소 : 기독교 회관(KNCC)

외대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문화논평－문화전반에 걸친 복고풍현상 해부

복·고·풍·이 밀·려·온·다



과거를 소비하는 시대

최근 복고풍이 문화의 바람을 타고 유행으로 지리잡고 있다. 복고풍이나 의고적 취향은 상품과 패션만이 아니다. 대중매체들은 과거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풍설인니>에서 최근의 <아들과 딸> 그리고 <한강뻐꾸기>에 이르기까지 드라마들은 때묻은 과거를 뚱장시키며, 코미디나 쇼프로그램, 광고등도 혹백의 향수어린 장면을 다투어 내보낸다. 복고상품과 텔리비전 프로그램, 광고들은 그 충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과거를 소비하는' 문화의 재생산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새로움을 지향하는 문화의 반동

복고문화는 새로움을 지향하는 문화의 반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나가 버린 낡은 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받아들이려는 추세는 새로움을 지향하는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복고문화는 엄밀히에 또다른 새로움을 지향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판탈롱바지는 과거의 유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향수가 묻어 있는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재등장 한다. 지난날의 추억을 반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복고에서의 과거는 역사가 아니다. 그 과거들은 역사가 되기에는, 가까운 현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먼 과거이다. 즉, 기억과 향수로 떠올릴 수 있는 한 세대의 지난날이다. 따라서 복고문화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소비이다. 복고문화가 새로움의 연장 속에 있다는 말은 복고문화의 대부분이 객관화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거나 그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요속에 그려보는 가난의 향수

과거의 재현은 과거를 지나온 개인들에게 '과거가 있음' 즉 과거의 존재 증명으로 작용한다. <'아들과 딸'>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과거와 만나게 되며, 자신과 동일시된 대상을 만나게 된다. 복고의 드라마들이 한결같이 과거의 소품들을 치밀하게 엮어 나가는 이유는 바로 '과거와 동질화하려는' 의식을 소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과거가 없는 인간이란 없다)는 잠재되어 있는 대중의 본능적 회귀의식을 일깨우고, 현재의 분열된 자아를 과거를 통해 통합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살아보세"로 표방된 발전이데올로기의 결과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치 통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풍요의 논리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 지난날의 가난한 과거는 가장 강력한 통합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과거를 소비하는 문화는 이제 과거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공감대와 동질성으로 묶으며 그들을 통합시키고 자본의 재생산을 통해 문화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복고문화 속의 과거들은 과거가 지니고 있는 진정적인 효과 덕분에 성립하는 가상의 현실이다. 만일 과거는 복고풍의 유행과 대중매체에 의한 과거지향적 프로그램들은 과거의 결핍과 가난을 소유하게 한다. 결핍과 가난은 사실로서가 아니라 전설이기 때문에 회상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논리를 익숙하게 습득한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가난조차 상품의 소비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사회 속에서는 과거와 가난조차 상품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복고'의 탈을 쓴 문화적 지배전략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리마가 대거 등장한 것은 대중들의 산만하게 널려 있는 일상의 불안의식을 재빠르게 영상의 수요로 집중함으로써, 과거 자체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자본의 위력과 조직의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준다. 대중문화 혹은 일상적 영역에서의 유행이라는 말로 집결된 과거는 보다 분명하게 일상적 영역에서의 차별화된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되고 되풀이 된다. 그러나 유행은 대중의 감성구조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욕망의 도달 가능성'이라는 의사적 체험을 부추김으로써 상품의 재생산을 이루어 내는 자본의 가장 유연한 논리이다. 자본의 원리가 관철되는 영역인 대중매체는 복고의 유행에 문화를 덧씌움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케 한다. 접차 문화진다의 충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접차 눈에 띄면서 매체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지배력 강화는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은페, 보수화의 논리 숨어있어

따라서 복고문화가 지니고 있는 피상적 유행의 뒷면에는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과거의 회상'은 과거의 고통을 나누어 갖은 그리하여 현재의 고통을 분담하는 소비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의도된' 소비의 축제 뒤에 있게 될 풍요에 대한 확신의 '의도된' 반작용이다. 과거속에 자리잡은 가난 또한 원칙적으로 과거의 소비 품목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과거의 핵심이 가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노리는 것이 현재의 가장된 풍요임을 일깨워준다. 가난을 소비한다는 것은 정화히 말해 가난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풍요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핍의 현실에 대한 '거리두기'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의 가장된 풍요에 '밀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실천적 현실에 대한 '방각하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은폐시키며, 과거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발전된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수화의 논리로, 안정의 이데올로기로 제조직될 것이다.

김 진 송(미술평론가)

□영화이야기－'이름없는 영웅들'

사회개혁의 노둣돌 '민중'들의 이야기

[이진영 기자] 우리나라의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면 단기국이래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것은 역사적인 '영웅'들의 힘보다는 이름없이 쓰러져간 '민중'들의 힘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부당한 역사앞에 당당히 맞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들. 그들이 바로 '이름없는 영웅들'임것이다.

지난 4월8일(목), 9일(금) 양일간 용인캠퍼스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이하 한사연)에서 주최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이 지연대강당에서 상영되었다.

이영화는 지난 91년 제작되어 문화부의 탄압속에서도 대학가나 노동현장 등지에서 상영된 '암암리에' 알려진 민중영화다. 남누리 영상에서 기획하고 배인오, 이승찬이 감독한 91년 작품으로 아버지세대의 통일에 대한 바램과 자식세대의 노동문제, 학생운동문제를 한 가족사를 통해 천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장에 다니는 아버지는 어느날 프레스에 손가락을 잘린 뒤 공장에서 쫓겨나고 분단을 한탄하며 비참한 생을 마감한다. 한편 장남 민철은 가난한 집안형편때문에 공장에 취직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한다. 주인공인 민혁은 가난한 집안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운동에 가담한다. 민혁은 부잣집 딸인 선아와 사랑에 빠지나, 안기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된다. 결국, 선아와 민혁의 친구들은 '노동해방'이라는 큰 길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줄거리다.

이 작품을 제작한 배인오씨는 노동자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만큼 여기저기서 서툰점이 발견된다. 우선, 전체적인 개연성면에서 줄거리와 상황의 연결이 어색했다. 민철이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경위나,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작품은 작품전체의 완결성이나 작품성보다는 영화를 통해 이 시대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이 작품을 상영한 한사연에서는 "영화를 통해 사회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상영을 결정했다고 한다. 자본이 부족해 영화장비나 배우도 제대로 쓰지 못했으므로 영화가 제대로 완성되기 힘들지 않았는가라는 이해들이 더욱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화면에 너무 많은 모순을 담아 내기위해 욕심을 낸것이 이작품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된요인으로 지적된다.

조국분단과, 노동 억압, 학생운동탄압, 농민, 전교조 등이땅의 메마른 모순위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없는 영웅들'은 기교상으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고지를 향해 놓여진 영상의 '노둣돌'임은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문화 옹달샘

철학 이야기 주머니

－박건미 지음－

이 책은 생각하는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준 서양 철학자 18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크라테스에서 미셸푸코까지 철학사를 빛낸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철학의 근본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두. 5천원)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한기찬 지음－

딱딱하고 어렵고 골치만 아픈 법률에 대해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개념들을 사례화하여 독자와 함께 해결을 시도한다. 어렵기만 한 법률, 법률전문가의 전유로만 인식되는 법률을 그 주인인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길벗사. 5천8백원)

컴퓨터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고규홍 지음－

어렵고 전문적인 컴퓨터 사용설명서를 쌓아두고 전전궁궁하는 초보자들에게 쉽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컴퓨터의 활용도를 넓히나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이다.

(푸른나무. 5천6백원)

절망한 나에게 그들은 적이라 불렀다 －정념 지음－

이 책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감옥에서 겪은 체험수기이다.

6년 이상에 걸친 혹한과 굶주림, 질병, 협박, 굴욕 등에 맞서 싸운 주인공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인간정신의 궤적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연대기적인 책이다.

(나루. 5천5백원)

소리없는 만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정대협주최로 늘이패 한두레의 정기공연 '소리없는 만가'가 4월 3일(토) 부터 25일(일) 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도된 정신대문제에 이제는 다소 무관심해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대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평일에는 낮 4시30분 밤7시30분에 토·일·공휴일에는 낮3시와 밤6시에 열린다.

우리말에 쓰임새 (235) '-오'와 '-요'

①이것은 책이요.
②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두 어미 '-오'와 '-요'는 문장중의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종결형에서 쓰이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 '-오'로 적고 연결형어미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그러므로 ①은 '…책이오'로 적어야 하고 ②는 '…책이요'로 적어야 한다.

용인캠퍼스동아리 <우리말 기꿈터>

□문화초점－양캠 문화공간 부족문제

외대문화풍토 척박의 첨병

공·간·부·족

[이재우 기자] 용인·서울캠퍼스 모두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는 소극장이 없는 관계로 동아리인들과 문화공연을 사랑하는 학생들로부터 큰 빈축을 사고 있다.

허울좋은 대강당

현재 용인캠퍼스는 지연대강당을 소극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소극장수용인원이 1백5십에서 2백석인 점을 감안한다면 좌석이 5천석이나 되는 지연대강당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

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을 관람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알겠지만 소극장의 매력은 좁은 공간이에서 배우와 관객이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함께 교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연대강당은 또한 조명이나 기술장치들이 지주 고장을 일으켜 공연의 맥을 끊기가 일쑤였다. 더욱이 이러한 대강당마저 빌리기가 힘들어 연극을 사랑하는 학생들이나 동아리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용인캠퍼스에서는 제2학생회관이 신축중에 있는데 학교당국이 밝힌바에 의하면 이곳에 소극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고 한다.

계단식의자 조차 없는 소강당

소극장이 없는 서울캠퍼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용인캠퍼스와 같이 강당을 빌려 연극공연을 하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조명시설이 재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계단식의자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공연하는 학생들과 관람하는 학생들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영화상영은 대부분 시청각교육실에서 열리는데 공간도 좁고 비디오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어서 영화감상실(?)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5시 이후에는 학교당국이 이곳의 사용을 허락치 않아 공간시간을이용해 관람하다가도 수업시간이 되면 영화를 포기하고 일어서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영화'냐 '수업'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

공연시기가 다가오면 강의실을 빌려 연습을 하는 동아리들도 꽤 있다. 이들은 소극장을 빌려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타동아리들과 사용하는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곳을 빌리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문에 서울·용인학생들은 아무런 공연을 위한배려가 돼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눈물을 머금고(?) 공연하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음향·조명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질 않아 일년에 몇번밖에 공연을 하지 않는 이들에겐 소극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경희대의 경우 전문적인 문화공간인 크라운관이 있어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한다.

본교의 경우, 양캠퍼스 모두 문화시설이라고는 고작 비디오 라이브러리정도이고 각 문화·풍물패 동아리방을 제외한 그외의 문화공간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양캠퍼스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풍물패 연습공간문제는 예전부터 학생들의 계속된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아직 학교당국에 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대안은 있다.

학우들의 문화론을 고무하는데 필요한 제대로된 문화시설하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용인캠퍼스의 경우 동아리방들을 새로짓는 제2학생회관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학생회관에 소극장, 영화·음악감상실 등을 비롯한 여러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도 모색해 볼만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캠퍼스는 소강당의 내부수리를 통해 소극장으로 새로히 단장하는 것이 좁은 캠퍼스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대학수준의 척도

대학이라는 곳이 단순히 강의실과 도서관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화적 정서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우리주위에는 참으로 많다. 비싼 돈을 들여가며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는 학생들을 볼때면 안타까움과 함께 학교당국의 무관심한 태도에 야속한 마음마저 든다. 연극이나 영화음악 기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문화혼을 고무하는데 적지만 소중한 보탬이 될 소극장 등 여러 문화공간의 마련에 학교측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지발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요구만 제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눈과 머리에서 입과 귀로
개강 : 5월 3일
오리엔테이션
5월3일 AM : 7시 PM : 8시
인터뷰 : 마지막주
日本語 회화 ★듣고→말한다 →듣고→쓴다 체험학습 60分 ★한인, 일인연계강의
I.M.I 영어회화 ★전원 Native speaker ★Level 5단계 각 3개월
컴퓨터 영어회화
보고, 듣고, 느껴서 입으로 줄줄 쏟아지는 기적의 영어학습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Host Family가 되어 보십시요!!
세계 각국에서온 외국인과 1~4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E.I.I KOREA
문의 816－2030
일미일외국어학원
노량진 전철역 옆 일미일B/D
☎817-9362·3

삼육외국어학원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등 각국이 자매학원으로 운영되는 외국어회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각 학원 선착순 모집★
◎개강 : 5월 3일
◎접수 : 4월 18일부터 5월 3일
서울학원 —영어, 일어, 러시아어 ☎ 244-1275
영동학원 —영어, 러시아어 ☎ 543-2270
남영학원 —영어, 일어 ☎ 706-3615
신림학원 —영어 ☎ 889-4637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키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직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새치 말고 좀 미리한학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익숙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9기 수강생모집
●개 강 : 1993. 5. 3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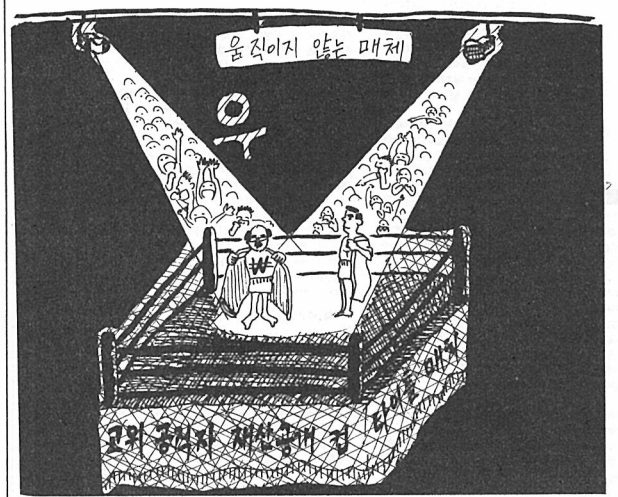
프랑스語
5-6月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 93. 5. 3(月)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 initiation, mauger I. II. BEF I.
• bonne route I. II. NSF I. II. 동급속성반.
• BEF II. ABC I. AP I. II. espaces II.
• echanges II. NSF III. SFP. TRADUCT
• questions internationales,
• expression ecrite, antenne 2, etc.
• 각 과정 특강 속성반, Discours반,
• conversation libre, 시사에디아반.
sé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GU 255-4630 DAE 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한불韓佛文化財團

O.M.R 정확력 전당
KARMA BIBLE 시리즈4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으나 패자는 성공을 후지로 삼는다.
제42회 일요 무료 영화 4월17일 오후 1:15~5:30
제38회 일요 무료 영화 4월18일 새벽 7시 아마데우스
이익훈 어학원
☎569-3187~9 568-3322(대) 강남역 6번출구

P.C WORK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금 곧 처리해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 탁월한 선택 직접 확인하십시요.
학위논문 레포트 레이저 출력 편집 복사
"빠르고 정확합니다"
P. C.WORK
외대 주택은행 옆
☎967-4360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와 남겨진 문제점들

매체비평 언론은 '감시', '비판'의 칼날 더 예리해져야



언론의 '여론몰아치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일단락되고 있다.

아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질책이 사그러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자 윤리법'개정 이후 국회차원의 실사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같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언론의 강도에 따라 대응책은 유동적일 수 있다.

여기서는 김대통령의 자발적 재산공개이후 연이어 나온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와 그것을 추적·감사했던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파연 '이번 사태로부터 무엇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재산공개 파문

지난 2월27일(토) 김영삼대통령의 재산공개이후 국부총리—장·차관·민자당의원으로 계속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개혁과 변화'를 내걸고 '윗물맑히기'를 시도한 점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붙들어 매는데 성공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이 되고 있지만 '비공개 원칙'에 의해 가려진 사회 지도층의 '탈법·위법·및 투기성 토지매입'등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에초 '재산공개'가 법적으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도라의 상자'로 까지 불린 이 투쟁을 열었을 때에는 개혁그룹의 숨은 의도(=정치권 물갈이)가 깊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언론이 3월23일(화)부터 자체적인 그물망을 쳐고 문제의원들에 대한 '탐사'에 나서면서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땅·땅·땅…', '억·억·억…' 의 시커먼 제목만큼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위선된 행위나 전도된 가치관에 온 국민은 그저 분노와 한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물론 이런 국민적 공분을 모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언론이었다.

국가사정기관도 아닌 언론이 익명의 제보와 투서를 비롯하여 자체적인 취재망을 '총동원' 문제제기를 한 역할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민의 뇌리속 깊이 자리잡은 '권력=부'라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데 큰 기여를 했고 미봉책마련에 급급하는 민자당지도부의 의도를 깨트리는데 국민여론을 잘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건수올리기'식 보도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고 늘어지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번죽올리기'에 경도된 것은 비판받아야 할 점이다.

즉 탈세의 과정보다는 단순히 과다부동산 소유의원의 집중나열(3월23일자 중앙일보 2면 '기준 흐릿해 불신만 눈덩이'와 사설 '웬 부동산이 그리 많은가') 보도가 국민여론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서둘러 김대통령의 '개혁성 부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정치구조의 근본문제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또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왜 신문이 처리대상 의원수를 5~6명으로 한정, 정치권의 수습에 충실한 '길잡이' 노릇을 했느냐는 점이다.

즉 김대통령이 문제의원처리는 전적으로 국민여론에 따를 것임을 충실히 보도했던 언론들이 실제 보도에서는 축소보도로 일관 발뺌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점이 이번 공직자공개 파문이 개혁그룹과 언론이 사전 교감아래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줄게 하는 대목이다.

3월30일(화) 이후 김재순·유학성·김문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3명의 탈당의원 10여명의 공개·비공개 경고로 민자당의원 재산공개 파문은 일단락 됐다.

이후 언론은 처음에 제기했던 재산공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사라지고 대안제시 및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민자당 지도부의 '정치적 조치'에 집중함으로써 美아가는 보도에 급급하게 되었다. '앙금 남긴채 재산불의 마무리'(한국 3월30일), '탈당 선수로 의원직 접착'(경향 3월30일), '은퇴, 탈당… YS경치 귀우 두거물'(조선 3월30일) '앙금'남긴 매듭…뒤숭숭한 민자'(동아 3월31일) 등이 그런 본보기 기사이며 이런 보도로 인해 북만 요란히 치고 남은 것은 없는 공허함만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더나아가 침통속 국회—당직개편 거론(조선 3월30일) '자칫 개혁에 장애'발빠른 행보(한국 3월30일) 등과 같은 '이제는 파문을 수습하고 개혁을 계속하라'는 식의 '길잡이'기사까지 등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각 언론들은 '부동산 투기 혐의'와 '무연고지 땅매입', '축소·누락공개'를 '도덕성'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민자당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부른 야당'에 경악(동아 4월7일), 속칭 '밀집' 6채 소유, 영세민 상대 임대업(중앙 4월6일) 과 같은 보도에서 '야당도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다분히 감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구 현금'의원들이 지적되는데 이는 과거 정치자금이 여당으로 독점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보도태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생산적인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야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는 없다.

오히려 절대적인 도덕성이 야당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 분노'를 유발하는 제목 달기와 '몰아치기 여론'조성이 한국사회 정치구조의 본질적인 면을 조명하고 대안제시에 소홀한 언론의 역할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와같은 대부분이 언론보도태도에서 몇몇 신문들이 보여준 자세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현 공직자의 재산상태만 연일 대서특필하면서도 전직대통령과 고위관료 군장성등 과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할때 동아일보 3월25일자의 '前대통령도 재산공개를'이라는 칼럼은 매우 돋보이는 기사였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재산공개, 충격과 파장'시리즈 기사는 '법적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해 문제점과 아울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안을 잘 제시해 주었다.

김영삼정권의 언론정책과 언론보도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번 재산공개 파문의 최대 승리자는 다름 아닌 김영삼대통령이었다.

파문 끝머리에 각 언론이 여론조사을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위의 주장은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보겠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의 개혁이 미지 고양과 '개혁드라이브'에 힘을 얹어주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유심히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이다. 김대통령 자신이 과거 정부의 언론정책이 '당근과 채찍'이었다고 단언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개혁정책의 추진에서 언론을 '동반자'로 여기는 호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할 점은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변했다 할지라도 언론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감시'와 '비판'의 칼날이 무디어질 때 새로운 문민독재의 출현도 가능할 수가 있기 대문이다.

여기에서 오는 '빈 공허함'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가슴에 남게 된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분과>

<정리 : 김두한>

<그림 이승찬>

우리의 랭귀지를 디버깅하자!

명수당 明水堂

우리말은 문법에 예외가 비교적 적고 어휘에 예컨대 명사의 성구별 같은 불합리한 구석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문법의 실종과 어휘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배우기 어렵고 쓰기 불편한, 나쁜 언어로 되어 버렸다. '당여종착'이라고 쓰인 지하철 역의 안내판, 마을 게시판에 붙은 '예비군 카드에 사진미부착 대원'을 찾는 공고—문법이 어디 있고 사전이 어디 있는가?

말의 생명은 구별에 있는데 우리말에는 같은 말이 너무 많다. 소리가 같은 말이 많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예컨데 '사자'가 몇가지 뜻이 있는가 세어 보시라!)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몸'과 '신체', '길'과 '도로'처럼 고유어 하나에 한자어가 하나씩 따라 붙는다. 흔말로는 '손', '발', '하늘', '땅'하다가도 합성어를 만들 때는 그 대신에 '수', '족', '천', '지'같은 생소한 말조자을 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낱말이 두벌씩이다.

수사는 고유어와 한자어 두벌로도 모자라서 텔레비전 뉴스만으로도 알아 듣고 싶으면 영어까지 합쳐 완벽하게 세 벌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데 G7의 7은 영어로 읽어야 한다.) 소리 같은 말, 뜻 같은 말이 없는 언어야 없겠지만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같이 구별 안되는 것을 구별하는 데는 힘이 들게 마련이다. 그것도 예컨데 영어 같은 보통 언어보다 두꺼, 세곱 더 드는 것이다. 말 배우는 데 힘이드니 그것을 완벽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 인상률이 두지리 수가 되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딴 나라 말보다 이상벽 프로나 더 세계 어깨를 짓누르는 우리말의 무게를 못 느끼는 것은 다만 그것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한국인은 '봄', '겨울' 대신에 '춘기', '월동기'를 써야 하나? 남들이 제말로 '누른 바다', '붉은 바다'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왜 남의 말을 빌어 '황해', '홍해'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왜 젖먹이 때 배운 쉽고 곱고 반듯한 말을 두고 어렵고 멋없고 문법에도 안맞는 삐딱한 말을 써야 하는가? 나는 지난해 프라하 카렐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낯뜨거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번역 연습을 위해 신문을 읽음까 하면 사설에서 광고까지 틀린 말 투성이이다. 소설이나 학술 논문에서도 문법 틀린 부분, 내용 이상한 부분이 똑같이 자주 발견된다. 우리말이 외국의 학생들에게만 아니라 한국의 문필가들에게도 어렵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벌게잡기(디버깅) 이다. 논에 벼를 심고도 이화명충, 매미충을 안 잡으면 말짱 헛일이 되듯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도 함수 하나 잘못 쓴 것을 찾아내서 고치지 않으면 기계에서 그것이 돌아가지 않고, 잘못 된 설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실행되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왜 젖먹이 때 배운 쉽고 곱고 반듯한 말을 두고 어렵고 멋없고 문법에도 안맞는 삐딱한 말을 써야 하는가?

황 종 인

<독일어과 교수>

언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로서, 빌레먹은 언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을 뜻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에는 벌레가 너무 많다. 이런 언어로 씌서는 문학작품도 학술논문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벌레를 잡아서 말을 살리자! 무엇보다도 먼저 소리 같은 말, 뜻 같은 말들을 정리하자!

다른 대학 에선

상지대학교

김문기 이사장의 비리 내막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민자당 의원 재산공개파장에서 비리가 드러나 업무방해,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규리법 등으로 구속된 김문기 이사장의 학원비리와 관련해 농성을 벌였다. 상지대는 지난 8일(목) 부터 전면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83~85년 3년동안 1백 34명의 신입생을 부정입학시켰고 실험실습비와 장학금등을 유용한 김문기 이사장은 교수 임용과정에서도 3년동안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용하는 등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

총학생회는 전면수업거부를 내걸었으나 일부교수와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경원대학교

부정입시 사건 아직도 해결 못해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교 등 경원학원(이사장 최원영)도 입시부정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발단은 두가지의 제보내용이다. 91년 최원영 이사장이 재산을 인수한 뒤 설립자 김동석씨의 측근들은 요직에서 쫓겨나 소위 '토착파'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토착파들이 91~93학년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입시부정을 폭로한 것이다. 여기에 새이사장 주변의 '신흥파'들이 여공세로 과거 설립자 이자 총장이었던 김동석씨가 있을 때인 88년의 비리를 공개했다.

신구재단 세력의 제보싸움으로 밝혀진 경원학원의 비리는 엄청나다. 수백억원을 받고 입학을 시키고 특히 예체능계 수험생의 실기점수를 높이는등 많은 비리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경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2일(월) '학원정상화와 부정입시 진상규명을 위한 7천 경원 규탄대회'를 열고 재단측의 비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권의했다.

하 계 영 어 연 수 안 내

1. 연수지역 및 연수대학 : 미국 서부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연수일정 : 1) 연수출발일정 : 1993. 7. 6. 13 : 30 김포공항 국제1청사 집결 예정
1993. 7. 6. 14 : 35 UA 808 김포공항 출발 예정
2) 연수지역도착 : 1993. 7. 6. San francisco 도착 예정
3) 연수활동 기간 : 1993. 7. 6. - 8. 12. (약 6주간 예정)

3. 견학일정 : 8월 13일; 버클라-요세미타-프레스노 견학
8월 14일; 프레스노-라스베가스 견학
8월 15일; 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 견학
8월 16일; 그랜드캐년-L. A. 견학
8월 17일; L. A. 견학
8월 18일; L. A. 견학
8월 19일; L. A.-호노룰루 견학
8월 20일; 오하우지역 견학
8월 21일; 호노룰루-시내 자유시간
8월 22일; 호노룰루-서울

4. 연수종료 및 서울 도착 : 1993. 8. 23. 15 : 50 국제1청사 도착 예정

5. 연수경비내역 : 1) 수업료 및 선정료 : $1. 055. 00
2) 숙식비(2인1실) : $1. 510. 50
3) 건강보험료 : $ 60. 00
4) 업무추진 및 수속관리비 입체 : $ 300. 00
5) 항공료 및 공용 여행경비 입체 : $2. 367. 00
＊예상 총 경비 : $5. 312. 50
(교재비, 편의시설카드비, 기숙사예치금 등 개인비용은 제외)

6. 여행구비서류 : 상담시 세부목록 배부 및 안내 받을 것

7. 공지사항 : 비클리대학에서 직접 설명회 개최
(4월 6일 15시~17시, 시청각교육원 401호)

8. 기타 : 1) 경비입세는 우체국 계좌 012625-0000211 강 영 은 앞으로 1993. 5. 27. 까지 직접 송금해주실 것.
2) 여권 및 비자발급은 일괄 처리함.
3) 소요되는 사진은 일괄촬영함.
4) 세부일정 및 여행경비를 사전 숙지하여 차후 의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5) 기타 지세한 것은 각 학생처에 문의할 것.
서울 학생처 : TEL 961-4033. 용인 학생처 : TEL 0335-30-4033

학 생 처 장

공 고

제목 : 용인캠퍼스 복지장학금 지급에 관한 일

1. 관련근거 : 복지장학금 운영규정(용인캠퍼스 제10차 복지위원회제정, 93. 4. 2)
2. 위의 복지장학금 운영 규정에 의거 1993학년도 1학기 용인캠퍼스 복지장학금 운영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1993학년도 1학기 매장별 복지장학금 입금현황

구 분	장 학 금 액
92학년도 1학기 이월금	3, 000, 000
구 내 서 점	4, 000, 000
화장품 매장	300, 000
컴퓨터 매장	700, 000
복 사 실	700, 000
대 학 생 활 협 동 조 합	4, 000, 000
미 용 실	1, 050, 000
잡 화 점	450, 000
안 경 점	400, 000
계	금 14, 600, 000원

2. 지급 현황
가. 지급인원 및 금액 : 20명×40만원=800만원
＊지급잔액 : 660만원(93학년도 2학기 이월)
나. 지급절차 : 복지장학금 운영 규정에 의거 대생협에서 접수 선발된 수혜대상자에게 학생처에서 장학증서 발급(4월 6일 이후)

용인캠퍼스 복지위원회 위원장 양 승 윤

□안기부, 기무사 체제개편에 대하여

안기부 기무사 새정부가 걸친 '누더기'

우리는 흔히 '공권력'이란 말을 자주 쓴다. 각종 민주세력탄압사례, 징치비리사건, 경제·언론계등과 연루된 의문의 사건등엔 으레 공권력의 개입, 내지 압력이라는 더이상 점근불가의 결론이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곤 했다.

그렇다면 이 공권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사회에서 이를 짐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로 역대정권을 줄곧 임해 휘왔던 군부세력과 또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해 수족처럼 활동해온 정보기구가 그것이다. 따라서 군부와 정부기구에 대한 개편, 혹은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는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한국 창조를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정부의 여기에 대한 개혁의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군사정권타도'를 외쳤던 경력이 있고, 스스로도 정치군인의 배제를 의미하는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다가, 그 역시 야당시절 69년 초산테러사건등에서부터 줄곧 정치공작에 시달려온 경험이 있는터라 더더욱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얼굴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6공2기 정부의 출범이후 지난 2월26일 신임내각 발표와 함께 전격교체된 김덕(전 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신임 안기부장 임명, 또 이보다 더더욱 충격을 던진 6공군부의 실세 '하나회'를 배제한 지난 3월8일의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경질등은 기존 수권세력의 공작정치 불식과 군부정치개입 축소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의지를 보인 상징적 임명이라는데서 이후 뒤이은 전폭적 개혁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한다.

안기부, 기무사는 달라지는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안전기획부로 대표되는 대통령직속 정보기구는 그 본래의 활동영역인 정보수집기구로서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선, 정권의 위기때마다 각종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며 심정적 국가통제기구의 역할을 해온 최고 통치기구였다. 법적으로는 정보의 독점과 수사의 영역이 모호한 '안기부법'을 토대로, 그리고 정치서열에서도 안기부장은 총리급의 위상을 지니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을 누려온 것이 안기부이다.

또한 기무사의 경우 지난 90년 윤석양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대민사찰이란 암묵적활동이 공개화되면서 여론에 못이겨 보안사에서 명칭만 개명되었을 뿐, 여전히 수방사, 특전사등과 함께 군내정치 조직의 대표명사로 여지껏 실세를 행세해왔다. 특히 기무사의 경우 그 요원이 전방사단 중대단위까지 배치되어 부대장을 감시하는가 하면(시사저널 4월1일자 참조) 그 존재근거조차 뛰어넘는 대민사찰까지 시행되는 등, 군내부에서도, 또 국민들로부터도 고까운 시선을 받아온 기구이다.

그러나 이같은 막강한 국가권력 그자체인 정보기구, 군정치조직을 전면 체질개선함에 있어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초, '얼굴바꾸기'전술은 그 내용이 부족하고 또 현정부의 권력성격상 이후의 장기적 해결방안이 준비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실효성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안기부의 경우 신임 김덕안기부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기부 스스로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시사저널과의 인터뷰 3월11일자)이란 여지껏 국민들이 요구해온 내용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일차적으로 안기부수사국내의 정치공작관련업무를 축소하고, 정보독점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보고체계에서 관련 장관에게까지 보고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정치관여등 정권안보차원업무의 전면폐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 요구하는 수사권 전면폐지도 수사시 요원의 '비노출'활동으로 개선방향이 맞춰지면서 기존 틀의틀 속에 수사시의 인권유린, 조작가능성 등의 의혹은 더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편 기무사의 경우도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닌 '하나회'라는 6공의 군부 정치세력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김영삼정부의 집권강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 정권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군부의 개혁이란 우리사회 각계에 속속들이 파고들어있는 군관련비리들과 연관되어 있는 데다가 해방이후 수십년간 뿌리내려온 군체질의 전향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오히려 그나마의 개선도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는 기존 정치군인들의 반발로 도리어 위기에 몰리거나, 아니면 또다른 인맥을 통한 단지 이름만 달라진 정치군인양성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밖에 기대할 수 없어.

안기부는 지금껏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체제유지'에 앞장섰던 사명(?)에서 손을 끊고, 그 업무자체가 대외 정보수집등에 목적을 둔 순수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현 안기부자체의 존폐 필요성까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기무사 역시 이후 통일한국을 대비한 군자체의 위상 및 현대적 전술 감각에 걸맞는 군조직의 전면적 개편이 따르지 않는한 '병무 부조리, 군가혹행위, 군내비리 척결'(권영해 신임국방장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3월9일자)이란 근본적 대안없는 가시적 변화이상의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안기부, 기무사의 개혁은 곧 정권자체의 위기상황 초래

다양한 개선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시적 변화밖에 기대 못해

문민정부시대의 공포

일단 이같은 현 정부의 개선과정에 일방적 비판보다는 이후의 연관된 정책적 대안에 국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김영삼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용공조작, 이선실간첩단 사건 등으로 자신의 집권에 정보기구의 힘을 톡톡히 맛보았으며, 또한 분단을 통해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정권의 성격이라 했을 때 그 무기와 방패가 될 안기부·기무사등의 전폭적 개혁이란 곧 스스로 정권자체의 위기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이 바로 '신한국 문민정부'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공권력'과 '군부'의 공포를 지워버릴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사회부〉

◇사월혁명연구소를 찾아

사월혁명은 미완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월례발표회, 학술토론회, 사월혁명상 등 다양한 활동

16일 33주년 기념행사 및 사월혁명상 시상식

건물 밖에 현판도 하나 걸려있지 않은 결코 크지 않은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는 쉰살이 넘은 4·19혁명세력들이 4월의 정신을 기리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모여 있다.

올해로 33돌을 맞는 4월혁명은 이제까지 지배세력에 의해 애써 축소되고 왜곡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4월혁명이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 근대 민주주의를 찾은 학생, 시민, 민중의 '연합혁명'임이 규명되고 있다.

이에 4월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로 구성된 사월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찾아 4월혁명의 의의와 연구소의 활동등을 알아보았다.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있는 윤성식 소장은 "회원은 모두가 4·19혁명과 5·16까지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며 연구소를 소개했다.

4월혁명을 축소하려는 지배세력의 온갖 회유와 방해(4·19상이자회와 같은 관변단체등) 로 87년 6월항쟁이후 군부가 한풀 꺽였을 때야 4월의 동지들은 모일 수 있었다. 연구소는 1988년 6월 4·19묘소입구에서 연구소 설립발의를 한 후 월례발표회, 학술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사월혁명상을 시상하는 것이 연구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수상자를 보면 △90년에는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천주 여사, 아직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통일운동가 장준하씨이고, △91년에는 4월혁명당시 경희대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이수병씨가 △92년에는 유신철폐와 학원민주화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김상진 열사와 문익환 목사이다. 올해도 4월 16일 홍사단 강당에서 33주년 기념행사, 강연회와 함께 사월 혁명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맑지 대표이사이며 연구소 임원인 심재택씨는 "4·19는 군사독재에 반발하고 외세에 도전한 전민중적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조직하고 지도할 세력의 부재로 5·16쿠데타에 의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4·19가 감오농민전쟁, 3·1운동을 계승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운동을 계승했으며 사회모순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다시 분출할 현재진행형의 혁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또 윤성식 소장은 "4·19세대임을 발판으로 군부정권의 밑에서 먹고 살며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4·19정신을 팔아먹은 변절자로 봅니다"며 그들의 '배신'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소 임원 모두가 5·16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희생을 강요받기도 하고 변절을 강요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진정한 4·19세대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때까지도 4월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 모순의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었다. 그러나 민중은 4·19를 일으켰지만 당시 요구되던 민중적·혁명적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수 없었다. 때문에 그 성과는 단순히 지배계급의 교체로 축소되고 말았다. 민주당 정권은 민중의 투쟁과정에서 얻어진 정권도 아니었고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민주당 정권은 개혁과 학살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봉쇄하기 위해 반공법, 데모방지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했다. 결국 4·19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에 머물렀을 뿐 민중에 의한 권력장악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으로서의 4·19는 분명 미완의 혁명은 아니다. 한일협정 반대투쟁, 유신철폐투쟁, 광주민중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4월혁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4월혁명의 정신은 또한 87년 6월항쟁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흘렀고 앞으로의 역사에도 끊임없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옥선 기자>

가요산책

추위속에 꽃핀 통일의지

추위를 박차고 일어나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며 입수경선에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열기는 봄이 되었지만 그동안 깨어나지 못한 왕산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수경언니 보고싶었어요', '수경선배 우리 백두까지 함께가요'등의 플래카드가 왕산을 수놓은 지난 9일(목)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함께 '입수경선배 환영대회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왕산인 한마당'이 힘차게 진행됐다.

지난 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해 3년여간 감옥살이를 한 이후 김영삼정부의 선별적 사면조치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입수경선배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석방 이후 애타게 기다리던 왕산학생들에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이다.

세차게 몰아치는 추위로 본행사이전에 계획된 노구봉 등반대회가 취소되고 왕산 산신당에서 학생들의 적은 참여속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산신제를 지냈다.

"낯서가 추워 학생들이 참여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한 학생의 모습을 보며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갔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의지는 그런 생각을 산산히 부수어 버렸다.

노천극장 군데군데마다 피어있는 화톳불에 의지해 옴츠려있는 학생들의 열기를 뚫뚫해진 힘찬 뚫뚫소리와 노래패 해무리의 당찬 노랫소리로 몸을 펴게했다. 급기야는 입선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은 통일의 의지를 힘차게 펴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위해 입대표가 무대에 나와 앉자 사인을 받기위해 몰려드는 학생들에게 "저를 영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입니다. 사인보다 우리 함께 밥이나 먹자구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날이 저물면서 더욱 드세어진 바람에도 불구하고 화톳불에 오들오들 떨며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의 모습은 단지 입선배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입대표도 추위에 떨고 학생들도 떨면서 오고가는 통일의 대화는 지금 닥친 추위보다도 더 쓰라린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조국통일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으리라.

환영대회를 마치면서 '조선하나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한 학생의 상기된 모습을 통해 그 학생의 통일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껏의 평범한 입수경을 '통일의 꽃' 입수경으로 만드는데에는 우리 외대인의 통일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센 바람에도 꺽이지 않는 통일의지와 함께 외대사랑의 의지를 높인다면 외대발전은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훈섭 기자>

제5회 한국외대 하계어학연수 운영요원 모집

본하계연수는 학생자치기구 대생협에서 매년하계 방학동안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93년도 본 연수를 운영할 운영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왕산 학생 90~92학번
활동기간 : 4월 6일(화)~8월 6일(금)
선발기준 : 성실, 책임감, 어학연수자 경험자 우대
컴퓨터 혹은 영타 가능
영어(문어, 구어) 가능자
행사기획 운영 경험자
위 사항과 관계없이 어학연수 운영에 경험을 쌓고 싶은 학우

선발된 운영요원을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연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면접 : 매일 늦은 5시반 대생협 연수국에서
연락처 : (0335) 30-4153

<대학생활 협동조합>

외대인은 자가용을 함께 탑니다

왕산에는 하루에 2백여대의 학생 자가용이 오갑니다. 그러나 안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쏙쏙 지나가버리는 자가용들이 부럽기도하고 밉기도 하죠?

자, 외대인여러분 이제 서로의 '정'을 발휘해 같은 방향의 사람들끼리 자가용을 타고 갑시다. 서로 친해지니 좋고, 교통지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니좋고… 안그렇습니까?

총학생회에서는 학교를 상징하고, 방향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 대 학 보 제/14/대/참/민/주/총/학/생/회

한국 대학교육의 대개혁을 위하여 V

사학은 정말 가난한가

김 동 훈
<전 교수신문 기자>

우리나라 사립대학 경영자들은 사학이 고사직전이라느니, 정부의 사학 지원이 미흡하다느니 하며 "더 이상 학교 경영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학의존 80%에 국고지원 2% 불과

이같은 원인은 우선적으로 사학의 재단 전입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2년 현재 사학재단이 안고 있는 순수부채는 총 1천7백42억1천5백30만원에 이르며 연간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에 지출되고 있는 금액만도 연간 5백5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90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에 의하면 32개 단과대의 총수입중 재단전입금은 26.8%, 51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44.8%)의 감절에 가까운 79.1%에 이르는 반면 국고지원은 국공립(60.5%)에 비교조차 안되는 1.0%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민총생산(GNP)의 3.7% 정도를 공교육비로 쓰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4.8%(88년), 미국은 6.7%(85년), 이탈리아는 5.0%(85년), 싱가포르는 3.9%(87년) 다. 91년의 경우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은 2백억 수준으로 사립대 전체 예산의 1%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교육당국 근본적 대책마련 없어

그러나 교육부의 사학재정난 풀이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잇따른 부정입학 사건을 기부금 입학제와 연결지으려는 사학과 정부당국의 시도이다.

기여입학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학재정의 깊은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기부금입학을 제도화,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자 대학 재단 이사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는 지난 89년 동국대 입시부정사건후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여론을 의식, '기여에 의한 입학제'로 용어를 바꾸었다. 즉, 현금이 직접 오고 조성된 재원을 교육시설 부자 및 도서구입비로 한정해 놓아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 동국대, 경기대 등 3곳 뿐이다.

1년간 3천원 투자한 상지대 이사장

그러나 여기서 우리나라의 사학이 정말 가난한가를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수백억대의 재산을 부정축재한 혐의로 구속된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씨(전 민자당 국회의원)가 지난 90년 상지대에 투자한 돈은 고작 3천원이었다. 일부 부도덕한 사학운영자들이 취약한 재정난을 핑계로 사학을 축재의 수단으로까지 삼은 것이다.

기여 입학제, 여론무마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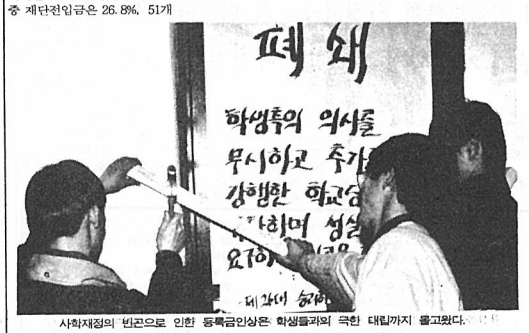
사학 재단의 성실한 노력 전제돼야

지난 2월 실시된 국회 교육청소년 상임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재산 가운데 부동산 액수만 사학 순수부채의 8배가 넘는 무려 1조3천7백8억여원, 현재 시가로는 2조 3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동산 이외에 주식, 채권등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도 2천49억 9천97만원에 달해 사실상 사학재단의 자산이 양호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 관계자들의 주장이 이처럼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마다 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만봐도 알 수 있다.

지난 80년 85개였던 전국의 4년제 대학(교육대 제외)이 지금은 1백26개교로 10년 남짓 사이에 42개교가 늘어났다. 대부분이 사립대이다. 눈만 뜨면 사학이 돈이 없어 파산 직전이라고 아우성치는 우리 사학들이지만 그걸 뻔한 알면서도 대학설립 인가를 요구하는 정치인, 기업인, 지역유지 등 '욕심사업' 희망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충하는 등 제할 일을 다하면서 제대로된 재정난 해소책을 만들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사립대학 경영자들이 진정한 육영사업의지를 갖고 학교를 경영하는 것만이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사학재정의 빈곤으로 인한 등록금인상은 학생들과의 극한 대립까지 몰고왔다.

종합대는 14.5%로 나타났다. 88년의 경우는 전국 80개 사립대중 27개 대학의 재단전입금이 학교재정의 1%에도 못미쳤으며 일부대학은 학교운영에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사학 의존도는 80.0%로 프랑스 2.4%, 영국 5.8%, 미국 54.8%, 그리고 일본이 74.1%인 데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그러나 대학재정에서 사립대학이 국고지원으로 채우는 비율은 미국이 18.4%, 일본 22.4%인데 비해 한국은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 등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교육비가 지나치게 적다. 국립대학과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이 전체 예산에서 학생납입금가는 불법적 기부 뿐만아니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적 기여도 입학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지만 다분히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은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기여입학제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공정성을 잃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입시부정의 밀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책의 하나로 3년전부터 장려하고 있는 학교체 발행사업도 마찬가지다. 학교체 발행요건이 기체규모를 연간 재정수입의 5%이내로 제한하고,

사립대와 국립대의 차이

오늘날 서울대가 한국최고의 대학으로 부상한 데에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큰본 비중이었다.

사립대의 학생은 국립대보다 부유하다(?)

사립대의 등록금은 국립대의 곱배기

국고보조 확대로 사학 부흥 꾀해야

국립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립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대를 도립·시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국립대 학생도 아닌 본교생들에게 이 소식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껏 언론에 수없이 보도돼 왔던 사립대의 재정난, 재정위기 보도와 사학재단 비리 문제에 이제는 싫증을 느낀 학생들의 상대적인 신선함일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거슬러 고구려의 '경당', 고려의 '7재', 조선의 '서당'등은 사학의 진통과 명성을 크게 날렸던 학교들이다. 특히 고려시대 '7재'는 과거 합격률이 높아 국립대인 국학보다 선호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역할은 두드러진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설립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당시 독립운동과 신문화를 창조한 주역들을 배출해 왔다. 지금도 이러한 대학들이 명문사학임에는 틀림없지만 최고대학의 영예를 개교 50년이 안된 서울대에 뺏긴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산에 위치한 동아대가 부산대에 명성을 넘겨준 것도 같은 예이며, 국립대학이 있는 지방이면 어느곳이나 사례는 비슷하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여건을 조성했을까?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아보자. 우리 사회에서 돈은 대학의 시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유능한 교수들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울대와 본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보면 약40여 원과 2억8천만원으로 1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의 이러한 금액은 다른 국립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않으며 이는 학교운영비의 60%정도 차지한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운영비의 35%만을 등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비해 사립대는 국고보조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학교운영비의 80%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교는 85%를 상회하고 있다.

즉, 한낱 한시에 대학입시를 치룬 학생이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한명은 백만원대의, 한명은 그 절반을 내는 쌍극을 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오늘날 가난한 사립전국 1백여개 대학중 사립대가 80%를 차지한다. 40여개의 대학이 밀집한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서울대, 서울산업대와 공립인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를 찾을 수 없다. 이 수치는 '대학을 살리자'는 구호는 '사립대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로 직결됨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확대이다. 국립대도 증대해야 하지만 사립대의 국립대 수준으로의 인상도 필수적이다. 지난 대선때 후보들은 일제히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GNP대비 3.7%에서 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이 5%라는 수치는 공교육비라고 못을 박지 않은 만큼 학부모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여 5%만 되면된다는 주장까지 들려고 있다.

다른 부분에 비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개혁, 인재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학개혁의 재정지원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논하는 한낱 말장난에 놀아날 수는 없다.

독일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한국의 대학이 더이상 등록금 부정으로 얼룩진 역사를 남기지 않기위해 국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임성은 기자>

개혁의 돌풍은 셔틀에도

○…왕산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흡산들을 모현에서 학교까지 공짜로 태워준다고.

'걸어서 모현까지'운동에 힘입어 영업용 버스가 3백70원에서 공짜로 내리는 마당에 셔틀버스의 증차, 연장 방안은 없어 크로니클자 씁쓸.

학교 나으리들! 차 태워주고 밥먹고 사는 영업용의 정성도 가륵한데 셔틀버스의 증차운행도 지당한 말씀 아니실는지.

○…계유년초, 장안을 떠들석하게 했던 '대학입시놀음'이 성남법 경원대학에서 또 터져 민심이 흉흉.

밀도 끝도 없이 계속 터지는 입시부정사건을 쫓자 한 민초들의 성난 노랫가락에 교육부 나으리들 사면초가 신세타령만데.

'입시부정 터졌느냐 민초들 우지진다.

게으른 교육부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제너머 사래 긴 부정의 밭을 언제 갈려 하나나…'

○…이땅도 내땅, 저땅도 내땅, 땅땅거리던 어르신네들이 이제 마음 고쳐먹고 국산품 쓰기로 했다고 해서 크로니클자 답려갔는데.

사연인즉 재산 하나라도 줄이려고 앞다투어 외제차를 팔려고 내놨다가 안팔려 도난 신고를 한 차가 줄을 선 것.

재산공개 한풍 뒤 다시 '되찾았다'는 신고를 할 위정자 나으리들. 차만 도난신고 하지말고 땅도 도난신고 해 민초들 나눠갖게 함이 어떠한가.

○…쟁, 김원준, 노이즈, 이승철 그리고 임수경 : 모두 동격 뭐냐고? 다름아닌 왕산 새내기들의 인식체계달까?

사연인즉 지난 금요일 임수경 선배 환영식에서 새내기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임선배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달라붙은 것.

새내기 여러분, 임선배는 우리 우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이자 선배임을 각인하시앞.

○…찬밥 신세 서러워 찬밥 한톨도 먹지 않고 다이어트(?)에 들어간 이들이 있다는데…….

노동부 장관의 복직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해고 노동자 5천2백여명중 한명도 복직되지 않아 더이상 못참겠다며 노동자, 주먹쥐고 일어나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봐요 어르신네들, 해고 노동자 복직은 생명줄이라고요. 생명줄 찾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 거라구요.

허공에 뜬 복직약속

비둘기첩판

이문별

■주인을 찾습니다

지난 3월 9일(금) 3505에서 향토색의 필통을 잃어버린 분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오셔서 찾아가세요(곽인수라고 파여진 목도장이 있었음)

상업통장을 잃어버리신 조수정학우는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오셔서 찾아가세요.

<꼬마 비둘기>

■새내기 모집

여성이기전에 인간이고자하는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매듭풀기>

■입대축하

최종열(경영91) 학우의 입대를 축하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기원한다.

<AIESEC>

소영석(태국어91) 군의 입대를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외대 YWAM>

■교생실습 축하

우리의 꿈 연화 선배의 교생실습을 축하드립니다.

<한우리의 원재와 명희>

■생일 축하합니다

4월 12일(월) 수영부의 영원한 횃불 이란어과 오훈형의 탄생일 축하해요.

<수영부>

■부당징집철폐 광고기금마련 일일주점

때 : 4월 14일(화) 이른 11시~늦은 10시
곳 : 상경대 앞 잔디밭, Yes Bash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제2기 외대 사랑 선봉대 모임

대상 : 외대를 사랑하는 학우 모두
기간 : 바로 오늘 13일(화) 부터

<외대사랑 선봉대>

■금주 영화 MISSING

때 : 4월 16일 늦은 3시
곳 : 시청각 교육원 영사실(2210)

<영화울림>

■제5차 세미나

제목 : 언론·출판의 자유
때 : 4월 13일(화)
곳 : 3207

<공법학회>

왕산골

■감사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왕산학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월 9일(목) ~9일(금) 양일간 14만 4천 9백 5십원이 모여 정대협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이 모여 그분들의 삶에 조그마한 힘이 되었습니다.

<SCA>

■제251차 공개강의

때 : 4월 12일(월) ~14일(수) 늦은 5시 20분~7시 10분
곳 : 2308

<Time>

■고전기타 강습회

때 : 4월 8일(목) 부터 계속 늦은 5시30분~7시
곳 : 학생회관 417호
신입·재학생 대상으로 기초(스케일)부터 개인 지도

<한씨울>

■생일 축하

오는 4월 15일(목) 이유미(서학·항가리1) 학우의 생일을 왕 축하합니다.

<주상>

■새내기 모집

사랑으로 살아온 우리 R. C. Y에서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R. C. Y>

■신입회원 모집

서대 학우들 대상을 노래할 분을 모집합니다. 서대 학생회실로 와 주세요

<그루터기>

동문회

(이문)

순천·효천고

때 : 4월 16일(금) 늦은 5시
곳 : 상징탑

동총련·서총련, 93년 출범식 개최

한총련 건설 강화…서학련 건설 결의
총노선 결의 · 6기의장 옹립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오는 16일(금) 중앙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크게 학원자주화 마당, 조국통일 마당, 서총련 출범식마당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행사가 진행된다.

학원자주화마당에서는 그간 서총련의 학자투쟁의 역사를 노래와 무용으로 형상화 한다.

두번째 조국통일 마당은 88년이후 조국통일 투쟁의 역사를 총각으로 표현하고 신임 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숭실대 총학생회장) 을 추대한다. 또한 초청인사로 문익환목사의 강연도, 열림예정이다.

마지막 서총련 출범식 마당에서는 그간 서총련 건설과정과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어떤 조직이고 이후 나아갈 바를 형상화 한다. 또한 서총련 6기 의장으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김기원군을 옹립한다.

본행사 전에는 사전행사로 신입생 장기자랑, 중앙대 주변 주민과 함께하는 '길놀이'등의 대동놀이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금) 서울여대에서 개최된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은 2천여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총노선을 결의하고 제6기 의장으로 건국대 총학생회장 장용준군을 옹립했다.

이번 동총련과 서총련의 출범식은 한국총학생회연합 건설에의 결의를 다지고 이후 서울지역대학 학생연합(서학련)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서총련 출범식 준비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이번 서총련 출범식은 40만 서울지역 학생들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 서총련이 자리 잡기위해 많은 변화와 심도깊은 고민을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학련-학생연합 통합 단일정치조직 건설

서울캠퍼스 전학련 외대추진위원회와 학생연합 외대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수) 학생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단일 학생정치조직으로의 통합을 합의했다. 전학련 외대추진위원회는 이번 통합결정에 대해 "벌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채 각개약진하는 서울캠퍼스의 여러 학생정치조직들을 하나로 통일해 학생회와 동아리에서 개별·분립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흡수해 학생정치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중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충동문회, 본교 출신 해외주재 대사 초청

김현옥 충동문회장은 지난 12일(월) 동문출신 해외주재 7개국 대사 및 이강희 총장을 서울시청앞 플라자호텔로 초청하여 모교발전을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해외공관장 대사는 다음과 같다. 김교식(독일어-54·불고), 조기성(서반아어-55·페루), 윤태현(서반아어-56·베네주엘라), 오재기(영어-56 ·에콰도르), 김종록(불어-57·지이레), 홍장희(서반아어-59·엘살바도르), 최용(노어-61·폴란드).

성남연합, 비리의원 해명과 사퇴 촉구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은 지난 10일(토) 성남시청앞에서 오세응 민자당국회의원(성남 중원·본당) 재산비리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남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학생들과 거친 몸싸움이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성남연합소속 시민·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신구 전문대까지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선전문을 나눠주며 오세응 국회의원 사퇴를 주장했다.

양군모, 부당한 병역법 개정요구

부당징집 철회 요구 · 병무청 항의방문

본교 서울캠퍼스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위원장 백경선, 상경·경제4) 은 오늘 교내에서 일일찻집과 일일호프 개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여론화·홍보작업을 통해 입시국회 개원때 병역법 개정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늘(13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학생회관 앞마당 잔디밭과 학교앞 호프집 '에스페쉬'에서 열리는 일일찻집과 일일호프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관한 광고기금 마련과 학내여론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수익금 전액은 한겨레신문 15면하단 광고비로 쓰여진다.

이번 찻집과 일일호프를 준비중인 본교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오는 1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집회에 참여해 양심수 탄압에 이용되는 부당한 병역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 4월말에 입시국회 개원에 때맞추어 학내·학외 집중 선전기간을 마련하고 민자·민주당, 국방위, 병무청 등에 양심수 부당징집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발송과 병무청 항의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총여,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요구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지난6일(화) 부터 8일(목) 까지 학생회관 로비에서 '윤금이씨 살해미군 즉각구속과 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3일간에 걸쳐 5백여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총여학생회는 '이번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통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라며 서명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인문대, 학생총회 개최 학자 기조 인준

인문대학 학생회는 지난 7일(수) 인문대학전체 앞마당에서 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용인캠퍼스에서 가장늦게 총회와 해오름식을 치룬 인문대학생회는 학생들에게 개강후 지금까지 학원자주화를 위한 활동보고와 93년 사업기조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

비대위 소속 본교생 서명운동 중 연행돼

'투기재산 환전물수와 비리의원 전원소환·파면을 위한 전국학생비상대책위원회'소속 본교생 중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조민환(정과·정외4) 군을 비롯한 본교생 3명이 12일(월) 오후2시 명동성당부근에서 행사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조군은 11일(일)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을 한후 다음날인 12일 비리의원 소환·파면을 위한 서명운동과 호별방문을 하던중에 연행된 것이다.

다시 핀 통일의 꽃 지난 9일(목) 용인캠퍼스에서는 '임수경선배 환영대회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왕산인 한마당'이 벌어졌다. 꽃샘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린 이날, 많은 학생들이 모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사진은 연설하는 임수경선배의 모습. 〈이훈성 기자〉

교직원동정

◎아람어과 김용선 교수, 학회장으로 선임

아람어과 김용선 교수는 지난 4월 2일(금) 대우학술재단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5대 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학과움직임

◎서울 마인어과, 일일호프 마련

서울캠퍼스 마인어과는 오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대인의 광장에서 '93새내기들의 일일호프를 연다.

◎서울 신방과, 교수·학생 대동한마당 개최

서울캠퍼스 신문방송학과는 지난 8일(목) 학생총회가 끝난 후인 오후5시 대학원 강의실(6311)에서 교수·학생 대동한마당을 마련했다.

◎전국 미생물학과 학생회, 오는 5월1일(토) 전주대에서 체육대회 개최

본교 미생물학과를 비롯한 전국의 미생물학과학생회가 오는 5월1일(토) 전주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동아리 소식

◎자연대 그룹사운드 NSM, 오늘13일(화)부터 공연

지연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NSM이 오늘13일(화)5시부터 지연대 강당에서 정기공연을 펼친다.

◎동양학대 풍물패 두억시니, 오는 14일(수)까지 풍물강습회 개최

동양학대 풍물패 '두억시니'는 어제 12일(월) 부터 14일(수) 까지 소운동장 문화공간에서 풍물강습회를 개최한다.

◎용인 손말사랑회, 이틀 찻집 열어

용인캠퍼스 수화동아리 손말사랑회는 지난7일(수) 부터 8일(목) 까지 학생회관 로비에서 '이틀찻집'을 가졌다.

이번 '이틀찻집'은 농아원 방문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로 수화·노래 공연과 통기타모임 외비가디의 찬조출연도 있었다.

용인, 모현-학교간 승차료 무료

셔틀버스 연장운행 · 증차돼야

용인캠퍼스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학교-모현구간에 무임승차가 가능해졌다. 어제(12일) 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학교·모현간 요금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백70원을 받아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목)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무임승차와 아울러 유의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모든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는 승차권을 이용해 줄 것과 통서울터미널 매표창구의 혼잡을 덜기위해 학교매표소에서 기급적 승차권을 구입해달라는 것이다. 모현까지 무임 승차후 서울까지 연장하여 무임승차하는 경우에 당할 불미한 상황방지를 위해 각별히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서 117번 좌석버스의 경우 학교에서 모현방향은 무료승차에서 제외되며 학생들이 요구해온 셔틀버스의 연장운행,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업집행국장 이필성군(동학·아람어과4) 은 "앞으로 셔틀버스의 교양학관까지의 연장과 증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사람

"정신대할머니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

지난 4월5일(월) 부터 9일(금) 까지 고난주간을 맞아 정신대할머니들의 생활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운동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독학생회(SCA) 의 회원 정지민(서학·항가리어2)양의 말이다.

기독학생회는 이번주에 농민, 전교조, 양심수등의 문제를 하루에 한 부문씩 정해 그들을 위해 빠른 해결을 기도했다. 특히 정신대할머니들이 심리적 괴로움에 생계곤란까지 심하게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은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라며 전반적 행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한다. 정양은 이번 행사는 SCA와 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연계해서 더 의미가 깊었다고 덧붙인다.

"정신대할머니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

<정신대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정지민양을 만나>

일제시대, 12~16세라는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 일본으로, 괌으로, 써이판으로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곳마다 끌려 다니며 일본군의 정액받이로 전락했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지한 사과나 보상이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만큼 정신대의 문제는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들의 아픈 역사를 치부면서 그들의 아픈 역사를 빼저리게 느꼈습니다"라며 정양은 이번 서명, 모금운동을 통해 느낀점을 밝힌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톡톡히 털어 성금을 내고, 서명을 해준 학생들의 정성이 더욱 고마웠다고 덧붙인다. 이번 행사에서 모은 목으로 일괄할 수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한·일현대사의 숙제인 것이다.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정신대를 인식했는데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그들의 아픈 역사를 빼저리게 느꼈습니다"라며 정양은 정신대할머니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서양어대 학생회, 알뜰장터 개최

전공도서관 개관 기금마련 위해

서양어대 학생회는 12일(월) 부터 14일(수) 까지 전공도서관 개관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알뜰장터를 개최한다.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이번행사는 춘·하의류를 40%~7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게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서양어대 학생회장 정종경(독어4) 군은 "이 행사는 우리 서양어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람실을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도서관 기금마련을 우리 학생처의 기획목적이외에도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의류를 판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 행사의 취지를 피력했다.

상경대, 복사실 신설 오후6시까지 운영

지난 3월말부터 상경대건물 1층에 새로이 복사실이 신설·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복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며 복사와 더불어 레이저 출력및 스프링·제책본도 가능하다.

용인 총학, 4·19 기념행사 개최

마라톤대회 · 수유리 기념탑 참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9일(월)로 33주년을 맞는 4·19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기념마라톤 대회 △자료집 발간 △4·19정신계승 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인문대학생회를 비롯한 각단대 학생회에서도 14일(수) 부터 16일(금) 까지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시화전, 강연회, 비디오상영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치룰예정이다.

또한 18일(일) 에는 한총련(건) 주최로 수유리 4·19기념탑 참배와 집회가 개최된다.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후계자 양성

"저보다 더 나은 후임자를 키우기 위해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 럭키 부장 이승태

제 동료들은 가끔 누구 차라기 더 위대로운가 농담하며 부하직원 자랑을 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후계자 양성제도 때문이죠. 신입사원 시절 꿈을 물으면 더러는 호기있게 이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던 후배직원들도 십여년 지나면 빛나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회사 생활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윗사람이 바뀔 때마다 회사 전체에 한바탕 큰바람을 일으키는 식이었던 기존의 인사관리 풍토 속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날만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또한, 회사마다 있기 마련인 인정한 경영방침과 고유의 기업문화를 일관성 있게 계승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후계자 양성제도를 두어, 조직 내부에서 자란 사람들로 바톤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급하게 필요할 때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란 걸 알기에 평소에 장기적 관점에서 각계각층 후계자를 직속 상사들이 키우는 거죠. 저보다 나은 후임자를 키우기 위해 제가 부하직원들의 적성과 소질을 유심히 파악하고, 그의 장래를 위해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후, 근무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후배사원들의 눈빛이 신참시절의 초롱초롱함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제자리를 호시탐탐 엿보는 그들의 면면들은 눈빛이 위험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굳건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럭키금성은 인재를 키우고
인재는 럭키금성을 키웁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한의 소리를 찾아헤메는 소리꾼들의 이야기

영화평—서편제를 보고

판소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고 말겨!

<비정성시>로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대만의 감독 후 샤오시엔이 우리나라를 내한했을 때 "그 나라의 현실에 바탕을 둔 내용에 다분히 그 나라의 독자적인 형식을 취한다면 그 나라의 영화는 발전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꽤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영화 <서편제>를 본 후에 난 이 말속의 의미를 새삼스레 되새겨 보게 됐다. 우리의 고유한 소리를 찾으려는 소리꾼들의 한, 영화속 인물들의 슬픔과 고뇌를 기존영화에서 보아왔던 단순한 클로즈업을 통한 감정묘사가 아닌 카메라의 정적인 움직임과 구도속에서 관소리가 시종일관 어우러져 있는 우리만의 영화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장단은 소리가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여"하는 영화속 대사답게 영화는 어느 산골길을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동호(김 규철분). 그는 주막에 들러 주막여인의 관소리한 대목을 들으며 그의 어린시절 그에게 북을 가르켜 준 양부 유봉(김 명곤분)과 그의 배 다른 누나 송화(오 정해분)를 회상한다. 영화를 본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영화의 시작부터 작가는 영화의 중요 모티브가 소리와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아버지와 누나길을 흐뭇 떠나세월이 꽤 흐른 지금 그리움과 죄책감에 누나를 그리워하는 동호의 북소리에 이어 시종일관 장면은 소리에 미친 소리꾼들의 모습으로 바뀐다. 영화의 스토리를 이루는 주요사건은 소리꾼들의 발걸음속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드무비라는 명칭을 이 영화는 달고 있는데 로드무비답게 우리 국토의 계절마다 변모해 가는 수려한 풍경속에서, 소리꾼들의 생활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딛는 발걸음속에서, 그들의 한서린 소리를 중모리, 자진모리, 때로는 휘모리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에게 말한다. 단순한 노스탤지어를 부추기는 소리꾼들의 고생스런 생(生)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소리가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작가의 의도대로라면 영화의 형식은 크게 나무랄데가 없는 작품이었다. 영화속에서 떠돌이소리꾼들의 삶이나 아버지가 딸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은 갈등에서는 충분히 극적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런 장면에서의 절제된 롱샷의 사용으로 관객은 극적맥락에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의도를 뒷바침해주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5분이 넘는 롱테이크 장면이다. 귀에 익은 진도아리랑이 흘러 나오면서 소리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담길을 걸어 오는 것이 그것인데 고정된 카메라연출이 관객들로 하여금 이 가락의 흥에 맘껏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과 음악의 섬세한 조화도 돋보이는 것이 많았는데 세 주인공이 길을 떠도는 과정을 계절의 변화와 함께 논길, 언덕의 기본선과 판소리의 가락이 교묘히 합치되기도 했고 영화 전반부에는 춘향가를 후반부에는 심청가를 삽입, 극중 내용전개와 어느 정도 부합된 인상을 보였으며 동호가 판소리생활에 지쳐 떠나가는 모습에서는 망각렌즈에 의한 롱샷을 사용, 주인공의 심리에 일치되게 애절한 단소소리가 흐르기도 했다. 영화의 시작이 그랬듯 힘있지만 한서린 우리 소리가 흘러 나오는 영화의 끝부분은 수십년간 헤어졌던 동호와 송화가 해후하는 장면이다. 난 그들의 그리움에 찬 포옹따위나 눈물같은 서로의 접촉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단지 소리로써 응어리진 가슴의 한을 푼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지고 영화는 끝난다. 하나의 주제를 향해 끝까지 일관하는 작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요즘같은 물질적 풍요속에서 랩음악이나 테크노뮤직에 심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소리인 판소리에 미친 소리꾼들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소리와 흥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주체성을 세우는 시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리라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데 있어 소리꾼들의 한이라는 소재에 매몰되어 자칫 상부적이고 신파극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극의 전개를 흐트러짐없이 일관되게 한국적 미학을 창립하신 임 권택 감독님의 장인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영화를 본 후 깊거리 진열대에서 흘러나오는 판송소리에 잠깐 정신팔린 나에게 영화속 유봉의 대사가 나를 멈춰세운다.

바로 우리의 소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왜놀노래, 양놀노래가 아무리 지랄을 허도 판소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고 말겨!

최 정 현
(용인캠퍼스 영화 동아리 '빛모습'회원 서학 · 영어3)

5년후 외대의 모습

남아도는 왕산캠퍼스 땅에는 동양학대학, 동구어대학, 지역학연구소 등이 생겨나

드디어 '○○학번을 맞이하게 되었다.'

'21C를 여는 새내기 준비학교'에 오랜만에 만난 동기 · 선 · 후배들이 대거 초대되어 새내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끝에 '0'이 들어가는 학번의 학생들에게는 보통 수식어가 붙어있다. 주로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의 수식어들이었는데, 이번에 맞이한 ○○학번은 '0'이 2개나 들어간, 정말 기대되는 시대의 세대들이다. 하지만 현 한국사회가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은 않다. 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과거 얘기를 잠시 해야겠다.

'93년 5월에 UR협상이 타결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농약이 풍부한 미국쌀을 먹고, 자국에의 지만심으로 가득찬 하버드大 한국 캠퍼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강대국들에 의한 신식민지 시대가 시작 되었다. '○○학번들은 이런 나의 시각에 반발할지도 모르겠다. 전세계의 식품을 골고루 먹고, 전세계의 교사들에게 교육 받고,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을 둔 것이 생활화된 세대들은 그러나 제발 'Why?'라고 묻지 말아다오. 그냥 '왜?'라고 물어준다면 얘기를 계속할 수 있으니…

UR이 타결된 후 그 여파는 당장 외대로 닥쳐왔다. 한총련의 주된 사업중 하나였던 학원자주화투쟁과 양 배움터의 외대발전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많은 학우가 투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투쟁'이 주는 느낌 때문이라나, 색깔이 어쨌다나. UR타결 이후에는 색깔이고 뭐고 없었다. '외대는 변해야 한다.'에서 '외대는 살아야 한다.'가 되었으니까.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측의 지성으로 우리는 당면한 위기에서 살아 남아야 했다. 그것은 '위기'였다.

단순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던 마스터 플랜이 전폭 수정되었다. 왕산은 용인지역의 소도시화와 더불어 확장된 도로로 교통문제에 일단락을 지었다. 남아도는 땅에 동양학대학, 동구어대학, 지역학연구소 등이 생겼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한 교수가 두 배움터를 오가며 같은 강의를 하다보니 학생들과의 관계도 미약하고 연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배움터에 각각의 많은 교수님들이 확보되면서 연구경쟁이 일게 되었다. 이문동의 자곡동 이전투쟁은 눈물겹도록 힘들었다. 한때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만, 끈질긴 싸움으로 결국 따낼 수 있었다. 10년 후에는 이전이 완결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재단은 교육비 5% 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마치 민주화가 다 이뤄진듯, 예전의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외대는 아직 앓고 있다. 그 놈의 돈 때문에. (갖춘 돈, 더 받는 돈, 쓸 돈, 쓴 돈, 돈돈돈…) 지금은 언어계통별로 과가 재편성 되려한다. 빠른 시일안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지역학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모든 대학의 수업이 전문화 되는 지금 사정은 옛날과 다르다. 아니,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학지부, 무슨 투쟁이 아직까지 계속되는지. 학교는 일편 단심의 고집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가 보장되면 학교는 지식습득의 학원 기능을 뛰어넘어 민주화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건 왕산 어문관 식당 아주머니가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면을 주워담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후배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완연해질 봄을 기다리며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겠다.

김 선 정
(서학 · 이태리어3)

교정으로 돌아온 임수경 선배
—지난 8일(목) 용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임수경 선배 환영대회"중 연설하는 임선배의 모습
<이훈성 기자>

파수대

전국 최다장서의도서관과 3000평 체육관이 외대에…

4월의 화사한 봄햇살이 내리쬐는 학 트인 넓은 교정엔 진달래, 개나리, 목련이 피어 있고, 온갖 새들이 이곳 저곳에서 지저귄다. 우리들의 힘으로 따낸 자곡동 캠퍼스 이전,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다. 지곡동에서의 수업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한 생활. 하루하루가 정말 흥분의 도가니이다. 대모산 말 그대로 큰 어머니산의 포근함과 만주벌판과 같이 탁 트인 교정은 우리들의 푸른꿈들을 영글게 하는 것 같다.

지곡동 캠퍼스에서의 가장 큰 이점들은 교내 자전거 대여소와 모든 학우와 인근 주민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3,000평 규모의 체육관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아침 일찍 첫 수업을 듣기 위해 교문앞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다. 자전거를 타고 수업에 가야만 한다. 이것은 이문동 교정에선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다.

교정을 옮기면서 스페인에서 새로 초빙되어오신 미겔 교수님과 4명의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 왈, 학생들의 질적 수준과 캠퍼스 시설 그리고 지곡동 이곳 저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함과 활기. 외대는 세계 명문대학의 대열에 끼어도 전혀 손색 없을, 우수하게 클 대학이라고 하셨다. 외국인 교수님의 이 말씀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새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다니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다.

수업을 마치고 종들 연습실에서 이번교환 학생으로 온 스미스에게 우리의 민속음악을 가르쳐 주었다. 진지하게 북을 배우는 그의 모습에서 정말 세계로 커나가는 우리 외대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의 자랑인 3,000평 규모의 체육관에서 새내기들이랑 농구를 했다. 30개의 농구골대와 체육관 지하 수영장에선 많은 학우들이 체력 향상에 열심이었다. 오래간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다.

도서관에서 책을 골랐다. 러시아의 소설이다. 이문동에서와는 달리 도서관에 책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에서 장서가 가장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책이 많아서 좋지만 너무 많아 무슨 책을 봐야하나 하는 행복한 고민에 가슴이 설레인다. 정말 학교가 너무 많이 큰 것 같다.

오후 느지막하게 대모산에 올랐다. 대모산에서 바라보는 교정,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 대모산 기슭에 세워진 식물원에선 이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온갖 식물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관리인 아저씨가 안보는 틈을 타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땄다. 그것을 들고 새내기와 우리과 친구들과 술을 사들고 외대 동산에서 낭만을 즐겼다. 4월밤의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자곡동 곳곳에선 노래소리와 문화공연이 열리고 도서관의 불빛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밝게 비춘다.

우리 외대인의 지랑, 아니 전 한국의 자랑인 자곡동 캠퍼스 자곡동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 외대는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성큼 커가는 것 같다.

지금 캠퍼스 밖에선 외대에 들어오려는 50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우리는 이들에게 이 훌륭한 유산을 고히 그리고 기쁘게 물려 줘야겠다.

김 준 우
(서양 · 서반아어2)

지난 601호 12면에 실린 '새내기의 대학생활' 필자는 지현근이 아니라 윤병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과장에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제학과 동문, 교수및 학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 · 평화 · 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外國學綜合硏究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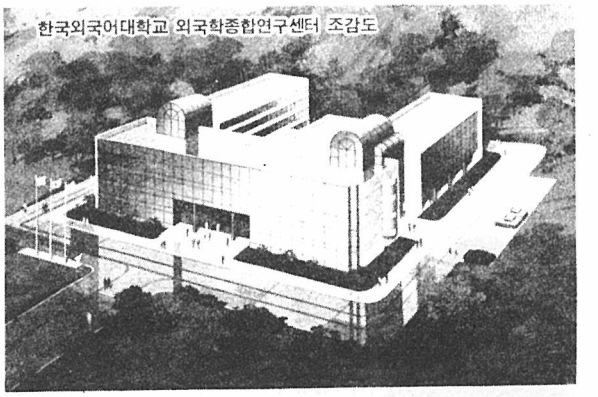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동—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인의 기상을 떨치며 활약하는
外大人의 모습,
바로 우리 대한의 자랑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적인 종합대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外國學綜合硏究센터」의 건립을 위해
外大發展後援會는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앞에 떳떳한 外大人은
한국의 자랑이라는 긍지와
국제문화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21세기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發展後援會